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뉴스잡지 142호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MP3

〈중국어〉

MP3-10 포모사 시후 센터의 선칠(4부) 상편

1991. 5. 5-12.

1. 성불한 후의 시험
2. 고도로 예민한 거울
3. 계율을 상황에 맞게 적용하라
4. 스승님의 교리 공부
5. 남자의 감성 세계

스승님의 출판물을 주문하려면 이곳으로 연락하세요: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Taipei, Formosa

Tel: (886) 2-87873935/ Fax: (886) 2-87870873

E-mail: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대만 우체국 송금계좌 번호: 19259438

수취인: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최신 간행물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비디오테이프

〈영어〉

749 로스앤젤레스 음악주간(Music Week)

2002. 12. 8-15.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상식

.....해피요기 모기장.....

디자인: 칭하이 무상사



스승님이 최근 디자인하신 해피요기 모기장은 벌레들로 인한 귀찮음을 확실히 막아 줄 뿐 아니라 몇 가지 놀라운 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명상할 때 모기장을 머리 위에 얹고 명상하면 무게감이 전혀 없어 마치 피라미드 속에서 명상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또 '1인용 텐트' 처럼 어디에나 걸 수 있고 해먹이나 아기 침대에 드리울 수도 있다. 몸을 꼭 덮을 만큼 길이가 충분하며, 얇고 간단히 접어져 갖고 다니기가 굉장히 수월해서 3초면 옮길 준비가 끝난다.

해피요기 모기장은 아무리 작은 벌레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미세한 망으로 되어 있고 구김이 가지 않도록 처리되었으며 정말 가볍다. 여러분을 벌레로부터 보호해 주면서도 부드러운 바람결까지 그대로 느낄 수 있어 한번 들어가면 오랫동안 나오고 싶지 않을 것이다!





모든 나라가 더욱 깨닫는다면 우리 역시
서로 더욱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 칭하이 무상사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42호

출판일자 : 2003. 11. 1.

설립년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31) 772-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
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
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
어, 포르투갈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
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앞표지 안/ 뒤표지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MP3/ 비디오테이프/ 새로 나온 책

2 스승님 말씀

집중과 무아의 헌신

4 다채로운 이벤트

스페인/ 헝가리/ 캐나다/ 아르헨티나/ 미국/ 태국

8 수행수상록

'나'에 대한 집착 끊기

9 제일선에서

진선미를 통해 몸과 마음, 영혼을 고양시키다/ 2003년 타이베이 국제도서전

11/ 38 매체보도

대만일보/ 대만시보

12/ 뒤표지 안 무상예술

무상사의 성화(聖畵)를 감상하고/ 해피요기 모기장/
2003 봄/여름 천의-린넨 니트 컬렉션

12/ 17 신기한 감응

꿈속의 인도/ 스승님의 묘한 안배로 학업을 마치다/ 길 잃은 양이 어머니를 찾다/
최고의 보호/ 스승님이 나를 고향으로 인도하시네

16 수행의 길목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

20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즐겁다

23 지혜어록

다른 이들에게 진실하고 자신에게 정직하라

23/ 31 감로법어

평화의 길

24 골라 뽑은 수행문답

시간을 활용해 명상하라/ 수행은 가장 좋은 애국의 길/
긍정적인 영성의 힘을 위해 힘껏 노력하라/ 긍정적인 에고는 삶에 필수적이다

24 단신

스승님의 최신 지시 사항

26 과학과 영성

과학으로 입증된 '선한 생각을 품으면 건강에 이롭다'

27 스승과 제자 사이

사랑의 화신

28 동물의 유정세계

나의 애완견, 엔젤

30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성왕(聖王)의 어진 도량

32 스승님의 추천 영화

33 영화 이야기

매트릭스-마야의 속박에서 벗어나라

34 사랑의 실천

미국/ 캐나다/ 태국/ 포모사/

2002년 11월부터 12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자선 활동 지출 내역/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전세계 자선 활동 지출 내역

40 스승님의 농담

포기라니, 무슨 말씀을!/ 하느님의 글자 맞추기 놀이/ 병원이여 안녕! 돈도 안녕!

41 수행일화

2003년 스승님의 음력 설 메시지에 대한 감회

41 관음사자의 여행일지

인연 있는 사람을 제도하다/ 곤경에 처한 제자를 구해 주시다/ 장의사에서 생긴 기적

43 관음 웹사이트

44 전세계 연락처

48 깨달은 스승의 생활경



청하이 무상사/ 1993. 1. 3. 포모사 핑퐁 라이이 센터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305

집중과 무아의 헌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심이 불안해지고 그로 인해 나쁜 기운이 생겨날 것이며, 그러면 스승이 꾸짖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나무랄 것입니다. 우리는 영문도 모른 채 “나는 왜 항상 야단을 맞는 거지?” 하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오오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행하는 사람들은 지혜안을 통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 역시 그것을 감지할 수 있지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도 속일 수 없습니다! 야단을 맞고 나서 보통 나타내는 첫 번째 반응은 꾸짖은 사람에게 화를 내고 원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는 자신의 행동이나 동기, 마음은 점검하지 않고 스승에 대해 불만스런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지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꾸짖으면 즉시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동기가 아주 단순하고 순수하다면 괜찮다는 것을 알 것이며, 마음도 편안합니다.

하지만 어떤 잘못된 점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남의 탓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힐책하는데 그 말이 옳다면 그를 우리의 선생으로 삼고, 그 말이 옳지 않다면 우리 업장이라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대중 웃음) 이렇게 처리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그 외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는 각자 다른 개성과 수행의 등급 때문에 혹은 전생의 인과 때문에 그런 마찰을 피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모든 게 순조롭기만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아주 공평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功德이나 신심이 무시당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신이며, 우리 내면에는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그것을 모를까 봐 왜 걱정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스승에 대해 100%의 신심을 갖고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자신에 대해서도 믿음을 좀 가져 보십시오! 신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또한 스승은 무소부재하다고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모를까 봐 걱정하고 영예를 다투고 남에게 과시하려 합니까? 우리는 늘 자신에게 솔직해야 하며, 일을 함에 있어서도 단순하고 순수하면서 그 어떤 불순한 동기에 의해서도 오염되어선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점점 더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스승 또한 우리를 주목할 것입니다.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하는 것이 최상이며, 그러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예전에 나는 어느 아쉬람에 있던 늘 스승 옆에 붙어 스승만 바라보진 않았습시다. 또한 스승들이 나를 봐주거나 어떻게 해주길 요구하지도 않았습시다. 나는 그저 봉사했을 뿐입니다. 계단을 끌고 바닥을 닦고 화초에 물을 주는 등 아무도 원치 않는 일들을 그냥 했습시다. 그 중 설거지는 사람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이었는데, 사람들이 요리를 한 뒤 잔뜩 먹고 나면 접시와 젓가락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시다. 나는 그것을 매일 닦으면서도 아주 행복했습시다. 지금은 사람들이 자연스레 나 대신 접시를 닦고 바닥을 닦고 계단을 끌게 되었지만요.

그러니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자기가 먼저 솔선해서 봉사하십시오.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는 신이 안배하실 테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선 안 됩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명리심, 경쟁심에서 해탈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해탈하지 않으면 언제나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서 천국을 보지 못한다면 죽은 후엔들 볼 수 있겠어요? 보는 습관이 안 들었을 텐데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습관은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예전 습관을 생각하는 순간 다시 돌아와야 하며, 그땐 또다시 어렵게 분투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양심이 분명하고 고요하다면 옳은

것입니다. 스승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위해 그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오래 행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 아주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거나 처리가 안 된 일을 보면 그냥 바로 합니다. 그때는 어떤 일도 꺼리지 않게 되지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은 대중을 위한 일로 모두 내가 전에 해봤던 일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또 하찮은 일도 없지요. 이렇게 제자가 많이 생기기 전에는 나 역시 시멘트를 비벼 제자들이 머물고 사용할 센터와 화장실을 지었습시다. 나는 못하는 일이 없었습시다. 단지 지금은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의 재능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도록 두는 것뿐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중: “예.”) 대장부들이 이토록 많으니 분명 ‘영웅’이 되어 나의 몸매를 보호하고 싶어할 거예요! (대중 웃음)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은 이익도 없고 보수도 없지만 우리에게엔 영광과 명예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중생들, 동수들에게 봉사할 수 있다는 건 영광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선 최고의 이득이지요. 하지만 세속의 부귀도 그리 얻기 힘든 건 아닙니다. 노력만 하면 얻을 수 있지요. 다만 이 일은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승의 총애를 받거나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 일하지는 않습시다. 만약 그런 마음을 품고 일한다면 그건 일종의 뇌물인 셈이지요. 우리는 하고 싶어서 일을 해야 하며 즐거워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최고의 포상이지요. 그 밖에 다른 것은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에서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들은 많지 않으며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지요! 아주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합니다. 왜 이 일에서 어떤 축복을 바래야 합니까? (대중 박수)





스페인 소식

희망적인 발렌시아 흥법

[발렌시아] 2003년 1월 20일 발렌시아 센터는 동수가 운영하는 채식 식당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해 이곳 주민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했다.

행사 당일 아침 발렌시아와 마드리드의 사형사저들은 열심히 전단지를 배포하는 한편, 스승님의 법상을 걸고 식당을 꾸미면서 저녁에 찾아올 손님들 맞을 준비를 했다.

준비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승님의 축복 속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강연회도 매우 성공적이어서 강연회가 끝난 후 참석자 중 약 3/4 정도가 남아 방편법을 전수받았다.

방편법 전수 후 몇몇 새로운 방편법 수행자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며 매우 신실하고 수준 높은 질문을 던졌다. 이에 행사를 주관한 동수는 명쾌한 답변으로 궁금한 점들을 풀어 주었다. 새로운 사형사저들은 모두 다음주 일요일에 있을 발렌시아 센터의 단체 명상에 참석하길 고대했다.



청중들이 오랫동안 품어 왔던 의문에 대한 사회자의 답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비디오 강연회가 끝난 후 무료로 제공된 채식뷔페를 함께 즐기고 있는 참석자들.

헝가리 소식

스승님의 가르침을 새로운 지역에 전하다

[부다페스트] 헝가리의 대도시 중 데브레첸과 세게드에는 지금껏 스승님과 관음법문이 소개된 적이 없었다. 이에 부다페스트와 기요르 센터 동수들은 2003년 1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이 두 곳에서 흥법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방문한 이 도시들에는 아직 동수나 방편법 수행자가 없었다.

우리는 강연회 때마다 스승님의 비디오테이프를 상영함으로써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이어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의 갈망을 풀어 주었다. 강연회가 끝난 후에는 채식 시식회를 열어 참석자들에게 채식 음식이 얼마나 맛있을 수 있는지 소개했다. 채식 음식이 평상시 먹는 음식보다 훨씬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된 몇몇 사람들은 채식이 어렵지 않을까 하던 우려를 씻어 내고 강연회가 끝난 후 바로 채식을 시작했다.



강연회로부터 2주가 지난 뒤 동수들은 이곳들을 다시 방문해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방편법을 지도했다. 방편법을 전수받은 새로운 수행자들은 모두 자신이 매우 특별하고 귀중한 보배를 알게 되었음을 깊이 체득했다!

캐나다 퀘벡 소식

기쁨 가득한 음력 설 축제

[몬트리올] 몬트리올 센터 동수들은 2003년 2월 2일, 교통의 중심지인 몬트리올 경기장에서 열린 음력 설 축제에 참가했다. 동수들은 이날 이곳을 찾은 모든 이들이 이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스승님의 비디오테이프를 계속해서 상영했다. 이 테이프들의 내용은 주로 스승님의 강연과 스승님께서 지난 수년간 전세계적으로 펼치신 인도주의적 활동, 그리고 스승님의 음악 및 예술 창작품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 외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최근 활동이 담긴 자료도 채식 음식과 함께 참관객들에게 나눠 주었다.

우리 부스에는 어울락, 중국, 스페인, 프랑스와 영어권 사람들 등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방문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과 우리 단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우리 또한 비디오테이프를 비롯해 스승님과 우리 단체에 대한 최근 소식 및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방문객들은 스승님의 예술 창작품과 가르침에 대해서도 깊은 호감을 나타냈다. 우리는 이 기쁨이 가득했던 음력 설 행사를 치르면서 스



승님께 감사드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했다.

아르헨티나 소식

세심하기 이를 데 없는 스승님의 사랑

[파라나] 아르헨티나 동수들은 2002년 2월 5일 파라나 강가에 위치한 작고 아름다운 파라나 마을에서 강연회를 열어 스승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다.

한 재단의 강당에서 열린 이번 강연회는 행사가 시작된 후에도 계속 밀려드는 청중들로 인해 초만원에 이르렀다. 행사는 지극히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으며, 재단 이사장인 네리다 우랑가 여사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남아 방편법을 배웠다. 이곳 라디오 방송 진행자인 아드리아나 아이더 여사는 이날 밤 다른 일이 있어 남지 못하게 되자 다음날 한 사저의 집을 방문해 방편법을 전수받았다. 아이더 여사는 그 기회를 빌려 이번 강연회와 관음법문에 대해 이 사저와 인터뷰를 나눈 후 그 다음



주 일요일에 이를 방송에 내보냈다.

새로운 방편법 수행자들은 한 사저의 집에서 단체명상을 할 수 있다는 공지를 듣고는 만족과 행복에 찬 모습으로 강연장을 떠났다.



미국 캘리포니아 소식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은
고귀하고도 즐거운 일!

[샌프란시스코] 2003년 1월 26일에 열린 음력 설맞이 엑스포는 지금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유사한 행사 중 가장 성공적인 행사였다. 다양하고 많은 부스와 사자춤, 불꽃놀이, 어울락 가수들의 무료 라이브 공연, 그리고 적절한 시간 안배 등 모든 면에서 많은 청중들을 끌어들이었다.

행사 동안 영적인 면에서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우리 부스에 들른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께 굉장한 존경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스승님과 진리, 지혜, 영원한 사랑에 대한 그들의 갈망을 보면서 우리는 큰 기쁨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런 솔직한 관심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목격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몇몇 방문객들은 동수들에게 말을 건다든가 스승님의 비디오를 본 다든가 하면서 우리 부스를 계속 맴돌며 떠나기를 아쉬워했고, 어떤 방문객들은 우리 부스를 몇 번이나 찾아오기도 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스에 들러 어울락 방송국에서 내보내는 스승님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애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 스승님의 예술 창작품은 방문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만세등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런 깨달음의 매개물을 통해 자연스레 발길이 닿은 많은 방문객들은 동수들과 대화를 나눔으



로써 스승님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스승님의 시역시 방문객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한 남자는 스승님의 시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스승님이 직접 낭송하신 CD 3장을 즉석에서 구입하기도 했다.

2003년 샌프란시스코 설 엑스포는 두고두고 회자될 매우 성공적인 행사였다. 이번 행사는 가장 즐거웠던 흥법 활동 중 하나였을 뿐 아니라, 동수들이 더욱 열심히 수행하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알리는 고귀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주었다.

미국 뉴욕 소식

뉴욕 동수들의 음력 설 경축 행사

[뉴욕] 뉴욕 동수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동수의 집 두 곳에서 단체명상을 하는 것 외에 일요일마다 그 지역의 한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단체명상을 하고 있다. 지난 911 사태 이후 뉴욕의 모든 고등학교가 보안 기준과 기타 제약 사항들을 강화시킴에 따라 많은 단체들이 그동안 사용하던 시설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뉴욕 동수들은 특별 허락을 받아



현재의 명상 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근처 농구장에 주차 까지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금보다 비싸다고 하는 뉴욕에서 동수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은 분명 스승님의 축복임에 틀림없다!

2003년 2월 9일 뉴욕 센터는 동수와 그 친척, 친구들, 그리고 관음 법문에 관심이 있고 스승님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손님들을 위해 개방적인 음력 설 경축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단체명상이 끝난 후, 사람들은 모두 축복 음식과 중국의 전통 설 선물인 돈이 든 빨간 봉투를 받았다. 주방 팀의 사저들은 맛있는 채식 간식을 풍성히 준비해 모두에게 대접했다. 손님들은 순수 채식 재료로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는 다들 놀라워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사랑하는 스승님이 올 한 해에도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함께 기원하면서 동수들의 수행 진보와 세계 평화도 기도하며 아쉬움 속에 행사를 마쳤다.



태국 소식

동포들에게 해탈의 길을 인도하다

【방콕】 2003년 2월 1일 태국 동수들은 한 자리에 모여 태국 남부의 송클라 시에 위치한 유서 깊은 마하바치라브지 학교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가 중국의 음력 설 첫날에 있어서 송클라 시와 그 주변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참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 및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그 중 교장 선생님은 견본책을 여러 권 요청하기도 했다.

참석자의 수는 예상에 못 미쳤지만, 방편법과 입문 신청자의 수가 지난 2002년 연말에 있었던 방콕 홍법 때의 신청자 수(자세한 내용은 뉴스 잡지 141호를 참조할 것)와 비등해서 우리를 놀라게 했다. 그 중 한 스님은 방편법을 배운 후 입문까지 신청했는데, 일반적으로 태국의 출가승들은 불교 수행 외의 다른 수행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태국 동수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해탈의 길을 찾도록 도울 수 있었음에 매우 감사히 여겼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동수들의 수



행 진보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훌륭한 기회였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소식

진리의 기쁨을 나누는 음력 설

[벤쿠버] 2003년 1월 25일 캐나다 벤쿠버 동수들은 이곳 음력 설 축제를 맞아 시민들에게 견본책자를 나눠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매주 방송되는 스승님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아주 열심히 즐겨 듣고 있다고 알려 주었다. 생각지도 않게 많은 이들이 견본책자를 달라며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냈고,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채식을 하고 싶어하면서 채식 요리법을 배워 갔고, 일부 사람들은 관음법문 입문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나타냈다.



수행수상록

‘나’에 대한 집착 끊기

프랭크 동 사형/ 미국 샌프란시스코

수행자들은 보통 에고를 수행 진보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에고를 완벽하게 없애는 것은 모든 수행자들의 가장 큰 소망이 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록 관음법문을 수행한다고 해도 약간의 에고는 남습니다. 삼계를 뛰어넘어야만 에고가 줄어들게 되지요. 그러나 그것 역시 없애시피 할 정도로 감소될 뿐 1% 정도는 남아 있게 됩니다.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지요. 하지만 이 정도의 극히 적은 에고는 남아야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계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칭하이 무상사/ 1989. 3. 2. 포모사 타이난 -원문 중국어) 따라서 우리가 마왕의 세계에 살고 있는 한 수행을 통해 에고를 최대한 줄일 수는 있지만 100%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관음법문을 수행한 후 나는 ‘수행’이라는 것이 하나의 ‘자각’에서 또 다른 ‘자각’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깨달았다. 수행을 열심히 하지만 한다면 우리의 신구의의 깨달음의 고양에 따라 점차 정화된다. 그 결과 우리는 주위의 모든 것에 매우 민감해지고 이전에는 옳다고 여겼던 것을 이젠 잘못된 것으로 느끼게 된다. 나는 에고를 끊고 장애를 극복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많은 공부가 안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우리의 수행 진보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다른 이들보다 공부할 게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그것 역시 사실상 각자의 상황에 따라 신이 미리 ‘맞춤 안배’를 하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전혀 불평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매우 감사히 여겨야 한다!

많은 실수는 무지한 에고에서 비롯된다. 이 에고는 우리를 온갖 습관과 선입견에 묶어 ‘나’의 생각과 말, 행동은 무엇이나 옳다라고 여기게 만든다. 이

‘나’라는 것이 우리 사고 속에 있을 때 신은 말없이 사라진다. 그런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비롯해 이 세상 모든 것을 무시하게 된다. 우리가 신이 내민 인도의 손길을 잃고 우리의 두뇌와 선입견에 따라서만 행동한다면 어떻게 고귀한 이상을 품고 신의 뜻에 따라 뭔가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항상 신을 기억하고 ‘나’의 행동과 말, 습관, 편견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어쩌다 한 번 작은 실수를 하게 되어도 그 순간 잘못을 깨닫고 즉시 참회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보기 때문에 신의 자비와 은총을 받아 상황을 쉽게 바로잡게 된다. 따라서 ‘이전’엔 잘못을 했지만 ‘이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된다.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한 집착을 끊은 결과이다!

진선미를 통해 몸과 마음, 영혼을 고양시키다

‘칭하이 무상사 심신과 영혼의 예술 작품전’ 특별 보도

포모사 타이베이 뉴스그룹

올해 1월 한랭전선이 포모사 전역을 휩쓸고 지나간 다음 눈부신 햇살이 얼굴을 내밀어 ‘칭하이 무상사 심신과 영혼의 예술 작품전’이 열리는 타이베이 시립 사회교육관을 내리쬐었다. 나뭇가지 위의 새들은 오랜만의 햇볕을 만끽하며 날개를 퍼덕이고 높이 날아올라 영혼을 고양시키는 이 행사를 소리 높여 알렸다.



타이베이 센터는 신의 축복으로 새해가 되자마자 타이베이 사회교육관을 빌릴 수 있었다. 2003년 1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에 걸쳐 열린 ‘칭하이 무상사 심신과 영혼의 예술 작품전’은 전시장이

버스 등의 대중 교통이 편리하고 인구 유동이 많은 타이베이 시 상업 지구에 위치한 덕택에 많은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매일 11시간 가량 개관하여 예술 애호가들의 환영을 받았다. 이 전시회 소식은 문화 예술인들이 애독하는 잡지 『아티스트』에 특집 기사가 실리고, 사회교육관 측에서도 3만 부의 팜플렛을 인쇄해 무료로 배부함에 따라 널리 알려졌다. 또한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주간지들도 이 회소식을 보도했다.

1월 11일 토요일 오후 ‘소리의 팔레트’라는 제목의 콘서트와 개막 다과회를 시작으로 열린 전시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그 중 서예가 리펑 씨는 스승님의 시 ‘평화를 찾는 이’를 제목으로 즉석에서 일필휘지를 날려 중후한 서법을 선보였으며(사진 1), 타이베이 ‘세계 동서문화 센터’의 사무국장인 류씨아오란 씨는 스승님의 그림에 영감을 받아 아래와 같은 시로써 스승님에 대한 경탄의 마음을 표현했다.

“정의로운 기운은 하늘을 찌르고
신성한 빛이 은하수를 비추네
평생 마음쓰는 단 하나는
세계를 구하려는 근심뿐.” (사진 2)
전시회 기간 중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많은 이들이 스승



사진 1



사진 2

님의 예술 작품에 담긴 영묘함에 큰 감명을 받았다. 한 미술 교사는 스승님의 작품을 감상하러 멀리 타이쥬에서 일부터 찾아왔는데, 작품을 보고 놀라움에 차 전시장 안내를 맡은 천 사저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 스승님의 그림은 참으로 비범합니다. 전시된 그림마다 강렬한 광채를 내뿜고 있고, 그 광채들이 전시장을 가득 비추고 있습니다. 사방은 고요함과 사랑의 기운으로 충만해 있고요. 정말이지 너무나 평화롭고 편안하군요.” 그녀는 학교로 돌아가 학생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각 그림에 담긴 숨을 뜻을 자세히 해설해 달라고 천 사저에게 부탁했다. 이에 천 사저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자 그 미술 교사는 다시 말했다. “당신이 웃으니 당신 뒤에 있는 스승님도 함께 웃는군요.” 천 사저는 그 말뜻을 이해하고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은 정말 큰 축복을 받으신 거예요. 금방 보신 것은 저희 스승님의 화신이랍니다.” 그녀는 이 말에



무척 기뻐하면서 스승님의 그림을 구매하는 데 깊은 관심을 보였다.

사회교육관에서 일하는 한(韓) 선생은 틈만 나면 스승님의 그림을 감상하러 오곤 했다. 스승님의 그림을 보고 친근함을 강하게 느낀 그는 그 즉시 스승님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제자가 되고 싶어했다. 그는 동수로부터 입문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듣자마자 바로 채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으며 방편법도 신청했다. 그후로는 매일 찾아와 스승님의 비디오를 보고 수행과 명상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다. 동수들은 해탈에 대한 한 선생의 강렬한 열망에 감동해 마지않았다!

전시회 삼일째가 되던 날, 사회교육관의 자원 봉사자인 정 양은 경비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오늘 아침 9시쯤 회관에 도착하니까 칭하이 무상사가 긴 코트와 바지 차림으로 1층의 그림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전시장도 한 바퀴 둘러보던걸요!” 혹시 잘못 본 게 아니냐고 경비원이 묻자 정 양은 재빨리 뉴스 잡지 139호의 표지에 실린 스승님의 사진을 가리켰다. “칭하이 무상사는 바로 이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선 다시 한쪽에 있는 견본책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분은 이런 긴 코트와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아주 간편한 복장이었어요. 긴 코트는 똑똑



히 기억이 나요. 일반 사람들이 입는 코트와는 달랐거든요. 틀림없이 칭하이 스승님이었어요. 난 그분을 알아요. 잘못 봤을 리가 없어요!” 그들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동수들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전능하신 스승님은 바다 건너 멀리 계시면서도 이곳까지 오셔서 모두를 축복해 주셨던 것이다. 비입문자들조차 스승님의 화신을 볼 수 있었으니, 포모사 사람들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들이다!

회향

저명한 시인 양핑 씨 부부와 인터뷰

포모사 타이베이 뉴스그룹

이번 스승님의 예술 작품전은 많은 문예계 인사들의 발길을 끌었다. 『빈 산에 내리는 하늘 비』의 저자인 시인 양핑 씨도 부인, 아들과 함께 참관했는데, 그는 개관일에 열린 음악회에서 시를 낭송해 달라는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다.

양핑 씨의 부인이 보기에 양핑 씨는 마음 수련과 존재의 근원에 대한 의문에 한평생을 바친 수행자다. 그는 수많은 종교 교리를 섭렵했지만 어느 종파에도 귀의하지 않은 채 근원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안고 선(禪) 수행의 길을 걷고 있다.

음악회 때 양핑 씨는 한 사저의 지터 반주에 맞춰 ‘전생의 긴 회향을 지나며’, ‘믿어요’, ‘한가로이 노니는 고요함 속에서’ 등의 자작시를 낭송했다. 이 시들은 영적인 아름다움과 평화를 바라는 시인의 소망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다음은 그 중 ‘믿어요’ 라는 시다.



“나는 그 중에서도 천상에서 오는 전능함을 믿어요
우리가 부드럽게 부르기만 하면
한 떨기 꽃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소란스런 시장으로부터
그리고 희미한 역사의 저편 끝으로부터
우리 한가운데로 올 겁니다
끊임없이 버스를 갈아타면서, 비행기를 타고서
수줍게 길을 물으며
허덕이며 무수한 육체로 바뀌어 입으면서도

길 잃은 파랑새처럼
결국엔 창문에 다시 나타날 거예요
나는 믿어요
전 시대가 통곡하고
온 도시가 오락한 안개에 뒤덮인 지금에도
먼지에 가려진 우리의 자성(自性)이
빛을 발하리란 걸 나는 믿어요
마지막 구원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오리란 걸 나는 믿어요”

매체보도

칭하이 무상사, 천국의 인상을 전하다

진선미로써 인문 예술을 해석한 ‘심신과 영혼의 예술 작품전’

[천리광 기자 보도] 칭하이 무상사는 영적인 스승으로서 그 자비로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 아니라 특별한 지도 없이 스스로 터득한 천부적인 예술적 재능으로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대인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칭하이 무상사의 다양한 예술 및 음악 창작품 속에는 질박하고 순수하며 단순한 진선미의 체험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타이베이 주민들에게 칭하이 무상사의 작품을 보다 가까워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타이베이 센터에서는 1월 11일부터 16일까지 타이베이 사회교육관에서 ‘칭하이 무상사 심신과 영혼의 예술 작품전’을 개최하고 있다.

6일간 진행될 전시회에는 유화 18점, 파스텔화 10점, 그리고 창작 예술과 공예를 접목시켜 완전 수공예로 제작한 만세등 12점을 비롯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칭하이 무상사는 스스로 터득한 자신의 재능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 모두 자신의 내면에 있는 전능한 힘을 계발하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할 게 없습니다.” 칭하이 무상사는 창작품을 통해 진선미와 신성(神性)의 양식으로 인문 예술을 새롭게 해석했다.

이번 작품전에 전시된 칭하이 무상사의 창작품들은 타이베이의 양밍산, 미아오리 시후, 핑퐁, 일본, 미국의 워싱턴과 시애틀, 캘리포니아, 코스타리카 등지를 배경으로 창작되었다. 무상사는 심오한 깨달음과 무한한 창조적 영감으로써 생활 주변의 소소한 사물들을 창작의 소재로 삼았으

대만일보

2003년 1월 12일 일요일 (원문 중국어)



‘칭하이 무상사 심신과 영혼의 예술 작품전’에서 무상사의 한 제자가 방문객을 안내하고 있다. (위썬시엔 기자 촬영)

며, 단순한 붓질과 진솔하고 질박한 화풍으로 ‘천국의 인상’을 완벽하게 재현해 냈다.



무상예술

무상사의 성화(聖畵)를 감상하고

2003년 1월 11일 아내와 나는 타이베이 사회교육관에서 열린 ‘칭하이 무상사 심신과 영혼의 예술 작품전’을 참관했다. 아내는 그 중 스승님의 그림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함께 성장하다’, ‘사막의 꽃’, ‘바다의 노래’, ‘석두동’ 등과 같은 작품들 앞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나는 그림에 표현된 순수와 진선미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각 작품들은 그 내용과는 별개로 생명의 장엄함과 희열, 희망, 그리고 화가의 자비와 사랑을 생생하게 그려 내고 있었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화가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 보며 그녀의 생각과 정신, 식견을 함께하고자 해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떠오르는 바가 있었다. “아, 이젠 바로 신의 용모가 아니던가!” 이에 나는 당시 느꼈던 그 진솔한 느낌을 다음의 시에 담아 보았다.

하이오 씨/ 포모사

진리가 있었네
선(善)이 있었네
아름다움이 있었네
아, 그리고 빛이 있었네!
하나하나, 모든 그림에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던
바로 그것은
신의 빛나는 용모였었네

신기한 감응

꿈속의 인도

인터뷰 및 기록: 포모사 타이베이 뉴스그룹/ 장원원 사저

‘칭하이 무상사 심신과 영혼의 예술 작품전’ 기간 중에 한 노부인이 호기심으로 가득한 얼굴로 전시장을 찾아왔다. 한 사저가 미소를 지으며 스승님의 잡지와 견본책자를 건네자 그 노부인은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모든 모습들이 내가 꿈에서 본 것과 완전히 똑같아요. 정말 신기한 일이군요! 아주 오래 전 꿈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젊은 여자를 분명히 봤어요. 그녀는 어떤 시장 근처에 서서 ‘당신은 채식을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후 나는 차츰차츰 채식을 하게 됐지요. 나는 4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채식을 하셨고 부처님을 모셨지요. 나도 불교에 대해 배우고 싶었지만 아주 오랜 세월을 찾아봐도 진정으로 날 이끌어 줄 스승을 찾진 못했어요. 그래서 매일 관음보살님께 기도만 올렸지요. 그러다 올해 1월 초에 건강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이름 모를 한 젊은 아가씨를 만났는데, 그 아가씨가 친절하게도 미아오리 시후 센터에 가면 방편법을 배울 수 있다고 알려 줬어요. 자기도 방편법을 배우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나도 시후 센터에 가서 방편법을 배웠지요. 나중에 타이베이 사회교육관에서 스승님의 예술 작품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큰 맘 먹고 와 봤는데, 여기 모습들이 몇 년 전 꿈에서 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게다가 전시장도 시장 근처에 있다니, 정말이지 너무 신기하군요!”

그 부인은 계속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은 젊었을 때부터 종종 내적인 체험을 경험했었고 관음보살을 보기도 했다고 얘기했다. 나중에 명상을 배웠을 때는 매우 아름답고 청초한 여성이 수시로 나타났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녀와 인연이 깊은 게 틀림없다고 믿었는데, 그러다 이날 전시 회장에 있는 스승님의 법상을 보고는 굉장한 친밀감을 느꼈다고 했다. 입문 자격 연령이 65세까지라는 얘기를 듣고 올해 64세의 이 노부인은 즉시 입문을 신청하기로 결심했다.

평화의 길-신과의 직접적인 연결

2003년 타이베이 국제도서전

포모사 타이베이 뉴스그룹



따뜻하고 아름답게 꾸며진 스승님의 출판 전시대가 국내외 참관객들의 발길을 끌다.

생명의 나무, 평화의 축제

독서는 유익하다! 2003년 타이베이 국제도서전이 포모사 천수이비엔 총통의 개막 선언과 함께 국제문화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번 도서전엔 세계 47개국 1천여 출판사가 참가해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영성 서적 구역'이 타이베이 국제 컨벤션 센터에 마련되면서 마음과 영혼을 고양시키는 종교와 수행에 관한 다양한 범주의 출판물들이 전시되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도 포모사 행정원 신문국과 중화 출판사업발전 재단의 초청을 받아 이번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부드럽고 우아한 파스텔 톤의 보라색으로 장식한 스승님의 전시회 부스에는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았으며, 다용도 전시대와 황금빛의 '생명의 나무'는 매우 특색 있는 구조물로 눈길을 모았다. 수많은 국내외 참관객들은 영원과 평화를 상징하는 '생명의 나무'에 관심을 보이며 평화를 바라는 소망과 마음을 전했다. 도서전에 나온 수많은 책들 중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이번에 새로 출간된 스승님의 책



세계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은 금빛 찬란한 '생명의 나무'.

『평화의 길-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이었다. 현재 전세계인들이 중동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시점에서 이 책의 출간은 그 의미가 각별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부사장이

자 총 편집장인 데일 호이버그 씨는 『평화의 길』을 선물로 받고는 인류를 위한 칭하이 무상사의 공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동경 국제도서전의 실무 총감독인 카오루 이와타 씨는 영성 서적 구역을 참관하고 나서야 포모사에 수행자가 대단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일본으로 돌아가면 일본인들이 정신 세계를 탐구하도록 동경 도서전에서도 영성 서적 코너를 마련해 볼 계획이라고 얘기했다.

멕시코 출판협회 회장인 곤잘로 아라이코 씨는 우리 부스를 방문한 후 스승님의 서적에 큰 관심을 갖고 가까운 시일 내에 스승님의 출판물을 전부 스페인어로 번역해 라틴 아메리카에 보급할 판권을 얻고 싶다고 얘기했다. 아라이코 씨는 또한 최대한 채식하기로 결심하고 방편법도 신청했다.

라이베리아 도서전의 대표인 프랭클린 토드 씨는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난 후 즉석에서 방편법을 신청했다. 나중에 그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 왔다. “그날 방편법을 전수받고 명상실을 나오면서 다시 태어나고 내 진아를 찾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느낌은 뭐라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저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와 관련된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었고, 훗날 제가 라이베리아의 거점으로, 혹은 연락인으로서 일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해 봅니다.”

포모사 주재 라이베리아 대사인 존 커밍스 씨는 친구를 통해 스승님과 관음법문을 알게 되었는데, 도서전 기간 동안 우리 부스를 찾아와 스승님의 그림과 책을 둘러보고 비디오 테이프를 시청했다. 당시 TV 모니터에선 스승님의 아프리카 순회강연이 방영되고 있었는데, 아프리카 공주 차림의 스승님을 보고 아프리카에서 온 이 대사는 따뜻한 감동을 전



포모사 주재 라이베리아 대사인 존 커밍스 씨(왼쪽)와 라이베리아 도서전 대표인 프랭클린 토드 씨(오른쪽).

해 받았다. 커밍스 씨는 조국에서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내전에 대해 깊이 염려하면서 스승님께서 라이베리아를 방문해 국민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도록 정중히 요청했다. 이어서 커밍스 대사는 방편법을 배웠으며, 이어진 30분간의 명상에서 좋은 체험을 한 뒤 처음의 근심에 싸인 얼굴이 온화하고 밝게 변했다. 그는 스승님의 책을 선물로 받은 새해 최고의 선물이라며 매우 기뻐하였다.

『평화의 길-신과의 직접적인 연결』

신간 발표회

2월 11일 도서전 첫날 전시장에는 관람객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새로 출간된 『평화의 길-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의 특색과 범상치 않은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우리는 신간을 전시하는 외에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별도의 신간 발표회를 가졌다. 이에는 각계 분야의 저명인사들을 비롯한 귀빈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세미나는 사회를 맡은 포모사 중국방송국의 전 뉴스 앵커 리지엔홍 씨가 스승님의 평생 업적과 『평화의 길』 출간 배경을 VCD를 통해 소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미 책을 읽어 본 전문가들은 이 책을 ‘20세기 평화의 서사시’라고 극찬했다. 국방의학원 루이스홍 교수와 원주민 다문화 예



『평화의 길-신과의 직접적인 연결』 신간 발표회에서 각계 분야의 저명인사들이 각자의 전문적인 관점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집중 토론하고 그 가치를 증명하다.

술단 단장인 야레이스 여사의 주재로 진행된 세미나에는 입법원 도서관 구

민 관장, 푸런 가톨릭 대학교 사회학과 왕칭중 교수, 재생연 생물과기공사 기술연구소 총감독 링원치 박사, 중국문화대학교 철학대학원 스차오잉 교수, 중화민국 심신의 기쁨 협회 옹지에 의장, 대만국립대학 루안즈성 교수 등 많은 전문가가 참여해 정치학, 사회학, 의학, 철학, 심신 개발, 역사 고증과 불교 등 다각도에서 『평화의 길-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에 대해 심층 토론하고 그 가치를 증명했다. 참석자들의 치밀하고 명확한 분석에 두 주재자의 유머가 보태져 세미나는 시종일관 지성과 감성이 교차하는 가운데 청중들로부터 많은 갈채를 받았다.

구민 입법원 도서관장은 『평화의 길』을 보는 순간 ‘진리’와 ‘지혜’라는 말이 떠올랐으며, 칭하이 무상사는 이 진리와 지혜를 통해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왕칭중 교수는 중국 문명은 수천 년간 ‘침묵(靜)’에 대해 집중 연구해 왔는데, 이 책에서도 침묵에 대한 해석과 그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연결점이 ‘침묵’에 있고 개인의 영적 발전 역시 ‘침묵’ 속에 있다고 하면서, ‘침묵’은 개인의 마음과 영혼을 세우는 질서이자 선 수행에 있어서는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여겼다. 선이야말로 침묵에 이르는 최고의 길이라는 것이다.

링원치 박사는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현대인의 수명이 길어지고 물질적인 혜택 또한 이전보다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의 공허함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면서 의사는 단지 육체만을 돌볼 수 있을 뿐 무상한 생명의 본질에 대한 두려움까지는 없앨 수 없으니, 칭하이 무상사의 이 『평화의 길-신과의 직접적인 연결』에서 우리 생명의 근원과 다시 연결되는 방법을 모색해 볼 것을 권했다.

스차오잉 교수는 고대 성인들과 우리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인은 성정이나 불경과 같은 고대 경전에 담긴 참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 칭하이 무상사는 우리와 동시대에 살고 있고 심오한 불변의 진리를 쉽게 설명함으로써 현대인의 마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한 많은 점을 깨닫게 해준다고 얘기했다.

옹지에 의장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를 푸는 열쇠를 찾는 데 있는데, 이 점에서 스승님의 책은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주는 열쇠로서 세상에 무한한 희망의 소식을 가져다 주고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 방법을 알려 줌으로써 이 시대의 운명까지 새로 쓰게 한다며 이 책을 적극 추천했다.

2년 전 포모사 중앙연구원에서 칭하이 무상사와 명쾌하고 활발한 대담을 나눈 적이 있는 루안즈성 교수는 이 책에서 칭하이 무상사가 ‘말없이, 기록된 바도 없고, 그 어떤 자취도 찾아볼 수 없는 법문’을 전한다는 내용을 보고 자신은 역사적 근거를 중시하기에 특별히 『반야심경』, 『능

엄경』, 『화엄경』, 『육조단경』 등 주요 경전들을 조사한 결과 고대 성인들 역시 일찍이 말없는 법문의 전수에 대해 언급했음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루안 교수는 그 어떤 경전에서도 전수에 대한 자세한 과정은 찾을 수 없었다면서 “지금 칭하이 무상사가 전하는 것이 그와 같은 무언의 경전일까요? 이 질문은 호기심 많은 구도자들이 직접 찾아보도록 남겨 두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건의했다.

사랑의 길을 걷다

음악은 모든 인류의 공통어로서, 아름다운 선율은 국적과 인종, 언어, 종교 등의 벽을 초월한다. 이런 취지 하에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2003년 2월 12일 타이베이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사랑의 길을 걷다’ 음악회를 개최했다. 포모사의 정상급 첼리스트인 구메이위 양과 아마추어 클래식 기타리스트인 요추안 씨가 스페인 풍의 연주곡을 선보이며 라틴 민족의 낙천적이고 열정적인 천성, 평화와 자유에 대한 갈망을 펼쳐 냈다. 동수들은 연주가 끝나자 스승님의 헝가리 부다페스트 강연에서 발췌한 비디오를 상영했는데, 이 비디오를 시청한 많은 사람들이 큰 감명을 받았다. 마지막엔 1백여 명이 남아 방편법을 배웠으며, 모두들 각 개인의 정화를 통해 세상의 평화로운 기운이 커지기를 염원하였다.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지구 곳곳으로 퍼져 나가 인류가 전쟁의 참혹함에서 영원히 벗어나고 진정한 내



면과 외면의 평화의 길을 찾아 나가길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사대(四大) 원소 워크숍에서 삶을 나누다

2003년 2월 13일 대자연의 4대 생명 원소인 지수화풍(地水火風)을 주제로 한 워크숍이 도서관 현장에서 열렸다. 강당을 가득 메운 참관객들은 관음 가족의 즐겁고 축복에 찬 분위기에 완전히 동화되었으며, 매일

십여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방편법을 신청하고 신과의 연결을 시도했다. 방문객들은 또한 서로 앞다퉈 세계 평화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적어 생명의 나무에 걸고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이 행사들은 썸 TV '예술과 영성' 프로그램 28편, 29편에 방영되었다.

인터넷 시청 관련 URL: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hichannel/index.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hichannel/index.htm> (중국어)



수행의 길목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

쉴라 사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원문 영어)

2002년 플로리다 크리스마스 선 행사에서 돌아온 나는 집에서 머물며 내면의 법칙을 만끽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러나 나의 업이 나를 다시 불러내 겨우 하루 만에 현실 세계의 일로 돌아와야 했다. 직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장을 보러 한 식품점에 들렀을 때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있는 두 명의 남자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들은 나에게 게임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게임은 모자에서 쪽지를 하나 꺼내 거기에 쓰인 질문에 답하는 것이었다. 내가 꺼낸 질문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였다. 당시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아주 간단해요. 인생의 의미는 신을 찾고 신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 1주일이 지나도록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는 TV 광고에서 질문에 답하는 나의 모습을 보았다고 얘기했다. 그후로 2주 동안 나는 계속해서 친구, 직장 동료, 학생들, 심지어 길거리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 등 그 인터뷰를 본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와 비슷한 말을 들었다. 듣고 보니 내 인터뷰는 다른 인터뷰와 함께 하루에 여러 차례 방송되었던 듯하다.

인터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가지각색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묻는 그 질문에 대해 곤혹스러워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이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했으며, 종교가

없는 나의 형제들조차 그 말에 동의했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설령 종교가 없다고 해도 신의 존재를 느끼며, 그것은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더욱 두드러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경험은 또한 관음법문을 수행하고 사랑하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내 인생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닫게 해주었다. 입문하기 전 나는 삶의 의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그로 인해 대단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이제는 관음법문 수행과 살아 계신 스승의 인도로 신께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삶에 대한 가장 어려운 질문은 가장 답하기 쉬운 것이 되었다.

스승님의 묘한 안배로 학업을 마치다

구술 : 강 사저/ 어울락

기록: 미국 LA 엔터테인먼트 팀 (원문 어울락어)



어울락에 한 소년이 있었다. 그가 9학년(우리나라의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겨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아버지가 늘 가정의 생계를 도맡아 오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가정을 거의 부양하지 못했다. 소년은 아버지가 감옥에 갈 정도로 나쁜 일을 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다. 매우 절망한 그는 학업을 그만두고 집에서 어머니를 도와 남동생을 돌보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교실의 자기 책상 서랍에서 사랑스럽고 상냥한 모습을 한 소녀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 소녀의 모습을 본 순간 소년의 마음에선 호감이 생겨났다. 그는 사

진을 손에 들고 반 친구들에게 보여 주며 혹시 누가 짓궂은 장난을 치는 게 아닌지, 아니면 누군가가 그냥 사진을 깜빡 잊고 간 건지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다.

그 소년이 다니는 학교는 한 교실에서 3부제 수업을 했기 때문에 소년은 어떤 소녀가 자기 자리에 앉았는지, 아니면 다른 두 반에서 누가 사진을 놓고 갔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반면 사진 속의 소녀를 볼 때마다 대단한 호감이 자라났다. 이때 학교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사진 속의 소녀는 마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니 공부를 계속하라고 격려하는 듯했다. 9학년부터 12학년(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소년은 남몰래 사랑하는 사진 속의 소녀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애썼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 몇 년 동안 성적이 대단히 우수했던 소년은 매우 뛰어난 학생이 되었고, 12학년 때에는 뛰어난 성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통과했다. 그해에는 그의 아버지도 출감하셨다. 하지만 소년은 졸업하면 더 이상 진학하지 않고 사진 속의 소녀를 찾아볼 계획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 소년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소년의 부모님이 내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장을 보러 나가자 집에는 그 아이와 나만 남게 되었다. 이제 막 졸업한 그는 어쩐지 활기도 없고 즐거운 기색도 없이 뭔가 말 못할 사정으로 고민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모습에 좀 걱정이 돼서 물었다. “이제 시험도 통과했으니 먹는 데도 좀 신경 써야지. 아버지도 돌아오시고 모든 게 좋아졌잖아. 너도 졸업하고 시험도 높은 점수로 통과했으니 마땅히 기쁘고 자신감을 가져야 할 텐데 왜 그렇게 슬퍼 보이니? 무슨 문제라도 있니?”

그제야 소년은 9학년 때부터 앞서 말한 사진 속의 소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얘기와 함께 그녀를 만나지 못한다면 평생 불행할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그 애가 그렇게 예쁘니? 너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하고 아름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 게다가 세상에는 예쁜 여자들도 많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당시 나는 사진 속의 소녀가 누구인지 몰랐기에 이런 식으로 충고해 주었다. 그러자 소년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가더니 사진을 가져와 내게 내밀었다. 그 사진을 보자마자 나는 바로 외쳤다. “세상에! 너,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겠니? 네 나이 적 스승님의 모습이잖아!” 이 말을 들은 그는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다. 그가 운 것이



고의는 아니었지만 스승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죄송스런 마음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스승님의 보살핌과 인도를 깨닫고 감사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얼마 후 그는 대도시로 나가 건축과에 진학했다. 고등학교 졸업시험에서 매우 높은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입학시험도 필요 없이 세 곳의 대학에서 입학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나는 이 모든 일들이 소년이 학업을 계속하도록 스승님께서 안내하신 것이라고 믿는다. 그가 열두 살에 입문하긴 했지만, 그의 반에는 입문자

가 없었으며 물어봤던 다른 반 아이들도 모두 비입문자였다. 그가 물어봤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사진 속의 소녀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 역시 그 소년이 학업을 포기하려는 장애를 극복하고 학업을 우수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스승님의 안내였던 것 같다.

길 잃은 양이 어머니를 찾다

구스타보 사형/ 브라질 상파울루 (원문 영어)

이 이야기는 방편법을 수행하는 브라질의 한 사제가 이야기해 준 실화이다. 고이아니아 시에 살고 있는 그녀는 수행을 시작하기 전 친구 집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있던 중 노란 옷을 입은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바다에 서서 그녀를 향해 손짓하며 부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친구에게 그 여성이 보이는지 물었지만 친구는 안 보인다고 했다.

1년 후 사제는 남편과 함께 방편법을 배우기 위해 그곳 명상센터를 찾아갔다. 센터는 심리학자인 동수의 집이었는데, 그곳에서 스승님의 DVD를 보다가 DVD에 나온 노란 법복 차림의 스승님의 모습이 1년 전 체험으로 보았던 바로 그 여성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너무 놀라 자신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며 심리학자를 찾아가 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때 집주인인 심리학자 동수가 자신의 신분을 알리고 그녀에게 다가와 몇 마디를 나누자 방편법을 하는 사제는 너무나도 기쁘고

놀란 나머지 울음을 터트렸다. 그녀의 두뇌는 신이 자신을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안내하셨음을 명백히 알고 있었지만 아직 몇 가지 개인적인 생활 습관을 바꾸고 싶어하지 않아서 우선 방편법부터 배우기로 했다.

몇 달 동안 방편법만 수행했는데도 그녀는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끼며 전보다 훨씬 행복하고 만족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의 힘이 벌써 그녀의 삶을 변화시킨 것이다!

최고의 보호

중국 본토 동수

작년 봄 어느 일요일 아침, 남편은 손자를 데리고 목을 먹으러 가려 했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집에서 조용히 명상하기에 좋은 기회였지만, 그날따라 나는 웬지 모르게 같이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우리 세 사람

이 목집의 노천 탁자에 앉았을 땐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다. 한창 목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가게 건물 4층

에서 유리가 2장 떨어졌다.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유리가 우리 몸에 떨어졌어야 마땅했지만 기적이 일어났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유리를 통겨 낸 것처럼 유리가 내 양쪽에 떨어진 것이다. 크고 작은 유리 파편이 지면에서 튀어 올라 우리 그릇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우리 셋은 털

끝 하나 다친 데 없이 무사했다! 나는 그 순간에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우리가 이 뜻밖의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스승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입문한 후 일어난 이런 기적들의 연속으로 인해 우리 가족은 스승님을 더욱 믿고 존경하게 되었으며, 나의 수행도 적극 지지해 주었다. 그들은 또한 관음법문 수행을 해야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큰 복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수행만이 우리를 천국의 고향으로 데려간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스승님이 나를 고향으로 인도하시네

중국 본토 동수



입문하기 석 달 전 나는 견본책을 친구에게 빌려 밤새 독파했다. 그 책을 읽는 동안 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스승님의 가르침과 심오한 지혜에 탄복하며 스승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였다.

반면 두뇌는 말썽을 일으키며 이렇게 말했다. “넌 염불을 그렇게 잘하는데 그냥 예불하고 염불하는 게 낫지 않아?” 나는 갈팡질팡하며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날 밤 푸른색 비단 옷을 입으신 화신 스승님이 침상에 나타나 엄한 목소리로 물으셨다. “도대체 당신은 무슨 수행을 하고 싶은 겁니까?” 나는 주저 없이 “관음법문입니다! 관음법문입니다! 관음법문입니다!” 하고 연달아서 답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내가 주저하고 있을 때 내면의 주인이 이렇게 확고하게 만족스런 답을 해준 데 대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로 인해 마침내 나는 스승님의 법상 앞에서 이번 생에는 반드시 해탈해서 고향에 가겠노라고 맹세했다.

며칠 뒤 화신 스승님은 같은 옷을 입고 내 침상에 다시 나타나셔서 자애로운 눈길로 바라봐 주셨다. 내가 “당신은 사진 속의 스승님이신가요, 아니면 진짜 스승님이신가요?” 하고 여쭙자 스승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저 미소를 지으며 윈크하셨다. 그때 스승님의 아름다운 속눈썹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나는 큰소리로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진짜 스승님이시군요!”

입문식이 있던 날, 입문식 장소에서 푸른 비단 옷을 입은 스승님의 법상을 보니 감동스럽기 짝이 없었다! 스승님의 눈을 바라보니 다시 꿈속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코 꿈이 아니었으며, 스승님이 정말 내 삶에 들어오신 것이었다. 스승님께선 내 삶을 바꾸어 내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으며, 나를 천국의 고향으로 인도하시어 영원한 열반을 누리도록 해주셨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즐겁다

청하이 무상사/ 2002. 12. 25. 미국 플로리다 (원문 중국어)

우리는 힘 닿는 한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렇다고 매일 밖에 나가 몇 사람씩 도와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발휘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나는 길거리의 노숙자를 보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 즉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줍니다. (동수: “하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도와도 끝이 없어요.”) 필요한 사람을 보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회를 기다리세요! 자신을 다그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매우 영광스럽고 즐거운 일이지 어떤 일이나 책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책임이라고 느껴지면 하지 마세요. 행복하고 즐거울 때 해야 합니다. 그건 우리의 영광이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도울 수 있다는 건 정말이지 매우 즐겁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저께 나는 개들을 위한 소파를 사려고 했지만 사지 못했습니다. 가게에 있던 소파들은 굉장히 컸는데, 내 작은 집에는 그것들을 들여놓을 만한 공간이 없었거든요. 개들은 자기 침대가 있긴 하지만 낮



에 밖을 드나들다가 피곤해져도 앉을 곳이 없어서 보통은 집안의 소파에 앉곤 합니다! (스승님 웃음) 그래서 개들에게 소파를 사 주려고 했었지요.

가게에 들어가 소파가 전시된 곳으로 가기 전 두 아이가 “제발 오를 있게 해주세요!” 하고 엄마에게 애타게 조르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얼핏 들어 보니 그 엄마도 아이들에게 이층 침대를 사주고 싶지만 곧 이사를 가야 하나 봐요. 그날 침대를 사게 되면 이사할 때 침대 운송비를 추가로 내야 하는 데다 그 침대는 이사를 갈 경우 조립을 풀었다가 다시 조립해야 하는 거라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지금 사고 싶지 않았던 거지요.

나는 그곳 책임자에게 말했어요. “이사 갈 때 들어가는 운송비를 내가 지불해도 되나요? 내가 지금 돈을 지불할 테니 그들이 이사하는 날 도와주세요.” 이 말을 들은 두 아이는 뿔 듯이 기뻐하며 나에게 주소, 전화번호, 이름 등등을 물어봤습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하지만 나는 “아니, 됐단다. 미안하지만 내가 좀 바쁘거든! 이거 너희들에게 주는 거니, 너희가 기쁘면 그것으로 됐어. 그러니 다른 건 묻지 말아 줘!” 라고 말하며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때 내 마음도 아주 기뻐했습니다.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정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산타클로스가 아니신가요?” 하고 물었거든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대중 박수) 그 중 작은 아이가 엄마에게 말했지요. “엄마, 산타클로스가 정말 있었어요!” 만약 그날 침대를 사지 못했다면 아이들은 크리스마스에 새 침대에서 자지 못하고 내년 이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그 침대는 내 마음에도 꼭 드는 것이었어요. (대중 웃음) 아이들에게 잘 맞는 색상으로 디자인된 것이었지요. 색깔이 아주 밝긴 하지만 조잡하거나 알록달록하지 않고 두세 가지 색깔이 잘 배합돼 굉장히 편안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아

이들의 안목이 꽤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 엄마는 다만 50달러가 아깝고 낭비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들에게는 아마도 적은 액수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자 그 가게의 책임자는 “50달러가 들어간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요.” 나는 그에게 100달러를 주며 말했어요. “50달러로 부족하면 나머지 50달러를 써도 좋습니다. 다만 오늘 아이들이 저 침대를 가져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있으니 중요한 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해요. 부탁드려도 되겠지요?” 그러자 그는 “그럼요. 문제없습니다!” 하고 장담했습니다. 그런 후 나는 그곳을 재빨리 빠져나왔어요. 원래는 개들에게 줄 소파를 사려고 했지만 감히 더 머물 수가 없더군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그래서 소파도 보지 못한 채 바로 그곳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계속 내 주위를 맴돌며 전화번호 같은 것을 물은 데다가 감사 편지를 보내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이지요. 나는 “그러지 마. 정말 그럴 필요가 없단다.”라고 했어요. 만약 그럴 때마다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도록 둔다면 우리 우체통이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스승님 웃음) 나는 돈을 주고는 바로 빠져나왔습니다. 정말 행복한 기분이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즐거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좋아하는 것을 바로 가질 수 있으면, 와! 좋아 죽을 지경이었지요! 만약 그것을 가지려고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어요? 안 그래요? (대중: “예.”) 게다가 크리스마스잖아요! 아이들의 엄마도 그 침대를 안 사주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매우 사랑하고 있었지만 내가 보기엔 돈이 많은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운송 비용을 내가 지불하겠다고 하니 다들 놀라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지금은 크리스마스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계속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야 할 쪽은 나예요. 내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니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그러므로 남을 도울 기회가 생기면 상대방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그 두 아이를 도와서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데 대해 그들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그 의도를 의심하기도 하니까요. 더욱이 그곳 책임자도 매우 협조적으로 나와 마치 모두가 그 일에 호응해 주는 것 같아서 매우 순조롭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건 결코 의무가 아닙니다. 그건 매우 영광스런 일로서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지요. 나는 그날 내내 행복했습니다. (스승님 웃음)

(동수: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피곤해집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어디서 그렇게 많이 봤지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세요. 우리가 전세계를 도울 수는 없습니다. 설령 다 도울 수 있다 해도 지옥 중생과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눈앞의 어떤 상황이 필요로 하면 하세요. 한 번에 하나씩 하면 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열 가지 일을 미리부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봤을 때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도울 수 없으면 마음속으로 힘을 전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한 상황에서도 그 엄마에게 이렇게 말해 줘도 됩니다. “와! 정말 멋진 침대군요!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사 주세요!” 이런 식도 괜찮아요. 꼭 돈으로 도와야 하는 건 아닙니다. 격려해 주려는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기쁨과 용기를 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일입니다. 그들이 그날 그 침대를 사지 못한다 해도 괜찮아요. 아이들에게 “괜찮아! 한 달은 금방 지나간단다. 그때 되면 침대를 갖게 될 거야.”라고 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힘을 줄 방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또 자기 자신도 즐겁게 그 일을 해야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어떤 상황을 보든 거기에 꼭 참견해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이지는 마십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그날은 신이 마침 내게 그런 기회를 주서



서 나도 아주 순조롭게 도움을 주었고 마음까지 매우 행복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지요! 만약 그때 돕지 못했다면 매우 괴로웠을 겁니다. 두 아이가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 한 달 후에나 침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만 하면 내 마음도 편치 않았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도울 수 있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남을 돕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행복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돕고 항상 큰 기쁨을 느낍니다. (스승님 웃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남을 도울 때면 언제나 행복합니다. 물론 매번 행복의 느낌도 다르겠지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나 또한 마음이 대단히 편안해지고 만족스럽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들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의심할 때도 있을 테지만, 그들이 도움을 요청했으니 나는 줍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 해도 그건 그들의 일이고, 나는 그래도 돕습니다. 그때는 좀 덜 행복하겠지만 남을 의심하며 돕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돌아와 “아, 그때 그들을 도왔어야 했는데...” 하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때로는 길거리의 사람들을 봤는데 차로 이미 지나쳐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

주 먼 거리를 돌아서라도 되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돕고 나아가만 행복해집니다. 내가 지나쳤다고 해서 돌아가서 그들을 돕지 않는다면 분명 집에 돌아온 후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한 발자국 다가서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왜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 겁니다. 주면 줄수록 기쁨도 더 커지지요. 내 말을 믿어요! (스승님 웃음) 아주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줄 수 있을 만큼 주면 됩니다. 전 재산을 다 털어 남에게 주고 자신과 가족들은 쓸 것도 부족하게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우리는 자기 가정도 돌봐야 합니다. 돌보고 나서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십시오. 그러면 매우 기쁩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도울 때는 마치 자기가 도움을 받은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치 자기가 도움을 받은 것처럼 상대의 편안한 느낌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이 이치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 도와준다면 기쁘지 않겠어요? (대중: “기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 겁니다. 신통이 없어도 알 수 있지요. 그 사람의 행복이 곧 여러분의 행복이 됩니다. 마치 굶주렸던 사람이 음식을 얻었을 때 그 사람이 어

떤 마음일지 아는 것처럼 여러분은 그가 느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정말 행복합니다. 누구에게 주든 그 사람이 내가 된 것 같지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나, 둘 다 행복하지만 내가 상대방보다 더 행복합니다. 나는 그의 행복을 느낄 뿐 아니라 내가 그에게 행복을 주었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행복을 합치면 내가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행복하다.’ 고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베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은 즐겁고 행복해질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결코 여러분에게 보시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기회라는 걸 알려 주는 것뿐입니다. 업장인지 아닌지는 나중 일입니다! 줄 때는 업장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만 생각하세요. 자기는 생각하지 말고요. 그래야 행복할 겁니다. 만약 업장인지 아닌지 계속 생각하면서 주면서도 업장을 두려워할 것 같으면 그냥 주지 마십시오. 그때는 행복하지 않을 테니까요. 줄 때는 자신의 훗날 과보가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행복을 느낍니다.

다른 이들에게 진실하고 자신에게 정직하라

칭하이 무상사/ 1995. 10. 30. 포모사 시후 국제 선철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508

우리는 매일 만나는 친구와 친척, 일과 일상생활 속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감정과 애정으로 대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진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에 상대를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거나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그들과의 사업상의 거래나 애정, 신뢰를 잃을 수 있으며 심지어는 그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율을 지키는 목적은, 언제든 자신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멈춰야 할지를 알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알며,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정직하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느낍니다. 그들의 내면에도 신이 있으니까요. 그들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속셈으로 온갖 거짓된 찬사로 아첨하거나 속일 수 있지만, 그들의 내면에 있는 신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래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율의 목적이며, 그런 목적 하에서 우리는 더욱 순수해지고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게 대하게 되며 인생의 여러 방면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진실한 것은 결코 상대에게만 이로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이로움을 얻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무엇을 주든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오니깐요. 다른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진아를 속이는 것은 큰 죄이며, 우리는 그렇게 해선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는 정직해야 하며 거짓말을 해선 안 됩니다.



감로법어

칭하이 무상사/ 1991. 10. 26.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때로 좋은 일을 하고 나면 우리는 옳은 일을 했음을 알고 기분이 매우 뿌듯해집니다. 그때는 신과 불보살의 품성에 매우 가까워지고 내면의 사랑이 발휘되기 때문에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면 천국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천국이란 우리가 죽고 나서 양 날개가 돌아나 제멋대로 날아다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대중 박수)



시간을 활용해 명상하라

청하이 무상사/ 2002. 9. 28.
보스턴 센터 동수들과의 화상회의
(원문 영어)

스승님: 내가 어떻게 충고할까요? 당신의 삶이 당신을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당신을 죽이고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다 죽여서 당신이 명상할 시간을 갖도록 해줄까요? 삶이란 원래 그런 겁니다. 삶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마세요. 당신이 삶을 지배해야지 삶이 당신을 정복해선 안 됩니다. 당신에겐 오직 이번 한 생밖에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 지금 이생을 손안에 넣으십시오. 최대한 시간을 내서 명상하도록 하세요. 불필요한 것들은 다 줄이고요. 전화 통화도 줄이고 신문과

질문: 사랑하는 스승님, 저는 약속한 대로 두 시간 반을 명상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때로는 일생생활의 활동 때문에 이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TV도 덜 보고, 친구와의 만남도 줄이고 커피 마시는 횟수도 줄이십시오. 상황이 되는 한 언제든 명상하세요. 여기서 5분, 저기서 10분 하는 식으로 해도 괜찮으니 시간이 날 때마다 명상하십시오. 어느 때든 최선을 다하세요! 방석에 앉아 명상해야만 명상인 건 아닙니다. 시간 날 때 눈을 감고 신을 생각하면 그것도 명상인 것입니다. 틈나는 대로 명상 시간으로 활용하십시오. 이슬람인들은 하루에 다섯 번 기도하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하루에 기껏해야 한두 번 명상하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하세요! 어떤 변명도 찾지 마십시오.

수행은

가장 좋은 애국의 길

청하이 무상사/ 2002. 10. 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센터 동수들과의 화상회의
(원문 영어)

스승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명상할 때는 여러분의 나라에 자연스레 선(善)과 좋은 이념, 축복이 발생해 나라를 이롭게 합니다. 명상을 끝낸 뒤에도 여러분이 언제 어디를 가든 삼매에서 생긴 가피력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평화로움과 조화를 느낄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 우리 수행자가 명상과 사회활동을 하는 것 외에 우리나라가 한데 단결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고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니까? 저는 한 나라의 발전이 국민소득이나 재력이 아닌 신의 은총과 평화, 사랑의 힘을 기초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엔 그들이 그 조화와 평화의 기운을 다음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지구가 점점 더 좋아지며 나라도 점점 발전할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조국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디에서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단신

스승님의 최신 지시 사항

지금부터는 완전 입문한 지 최소한 1년이 넘고 수행을 잘 하고 체험이 좋은 사람이라야 방편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수행에 자신이 없다면 방편법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영성의 힘을 위해 힘껏 노력하라

칭하이 무상사/ 2002. 5. 11.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스승님: 바로 거기에 묘미가 있는 겁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일이 너무 쉬우면 도전 정신을 잃고 이기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두 가지 힘이 있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것을 음(陰)과 양(陽)이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긍정과 부정이라고 하지요. 부정적인 힘은 우리의 본래 의지에 반대되는 일을 하도록 부추기고 긍정적인 힘은 부정적인 성향을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때로는 지기

질문: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전 저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장애가 계속 부딪혀 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싸움을 뛰어넘고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도 하고 이기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수양과 힘에 달렸지요.

그러니 계속해서 분투하세요. 마치 UN이 난민 문제와 세상의 전쟁에 대항해 부단히 노력하듯이 말입니다. 때로는 최후의 승리를 차지할 때도 있을 겁니다. 다만 어느 정도 발버둥치며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할 뿐이지요.

긍정적인 에고는 삶에 필수적이다

칭하이 무상사/ 1998. 3. 10. 영국 런던 단체명상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31

스승님: 꼭 그렇진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성공하거나 어떤 일을 완벽하게 끝내는 데서 기쁨을 얻기도 하는데 그것은 에고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예술가가 어두운 동굴에서 홀로 무언가를 조각한다면 그것은 에고와는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가서 그의 성과를 찬탄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는 단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마무리되어 행복할 뿐입니다.

우리도 그런 창조자입니다.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완성한다면 마찬가지로 기분이 좋지요! 에고가 있었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에고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에고가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자신의 수행과 진보를 방해할 때,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그들의 진보를 막았을 때, 그때 에고가 나쁜 것입니다.

따라서 '에고'란 것은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

질문: 때로 저는 일하면서 그 일이 성공하게 되면 에고가 자랄 것이 걱정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는데 물질적으로 성공하게 된다면 그 물질적인 측면에 기울게 되고 그러면 이러한 성공 때문에 에고도 자랄 것 같거든요.

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좋은 것이 되기도 하지요. 그것은 우리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지고 가야 할 것이므로 괜찮습니다. 죽기 전에는 약간의 에고는 가지고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위 '에고'라는 것이 없으면 뭘 먹고 싶거나 여기 앉아 있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뭐 하러 왔습니까? 성불하고 싶은 것, 그것도 에고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도록 등을 떠밀 배후의 동기가 좀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에고를 완전히 따르게 된다면 거기에 사로잡혀 점점 교만하고 무지해지며 온갖 명성과 영광, 허상의 명예에 힘을 빼앗기게 될 테니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에고는 자동차의 연료, 연꽃에 필요한 진흙, 장미를 키울 비료와 같은 것으로서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과학으로 입증된 '선한 생각을 품으면 건강에 이롭다'

포모사 『대기원주보(大紀元周報)』 발췌 저자: 위치

낙천적인 사람은 항상 긍정적 사고의 신경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늘 건강에 이로온 신경화학물질들을 분비한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긍정적 사람들은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낙천적인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 사고의 신경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늘 세포가 건강한 신경화학물질을 분비하도록 하며, 이 때문에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 이와는 반대로 비관적이고 염세적인 사람들의 신경계는 늘 부정적인 신경만을 사용해 점점 더 비관적이 되는데, 거기다가 매일 분노와 불평을 하게 되면 신경세포도 계속해서 세포를 죽이는 신경화학물질을 분비하게 된다. 그러므로 비관적이고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자살을 하고 있는 셈이다.

어렸을 때 부모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하든 선한 마음으로 해라. 선을 행하면 선한 과보를 받고 악을 행하면 악한 과보를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다. 대학원에 갔을 때 나는 이 말이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행히도 ‘선한 마음 갖기’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기본 원칙이었다.

생각과 신경화학

나는 대학원에서 신경화학 석

사 과정을 이수했다. 당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인간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할 때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고를 할 때 사용하는 신경계가 확연히 다르며, 또한 그 두 신경계가 서로를 억제한다는 사실이 이미 과학적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생각이 낙천적이고 평화롭고 감사하고 즐거울 때는 ‘긍정적 사고의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다른 ‘부정적 사고의 신경계’는 작용을 못할 뿐 아니라 억제를 받게 되며, 반대로 마음이 증오와 슬픔, 실의, 공포, 시기로 가득 차면 부정적 사고의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작용하면서 긍정적 사고의 신경계는 완전히 마비된다.

과학자들은 이미 오래 전에 ‘신경세포는 활동할 때 지름길로 다니는 것을 좋아하며 이로 인해 좀처럼 사용하지 않는 신경세포보다는 자주 사용되는 신경세포가 쉽게 활성화된다.’는 매우 특이한 성질을 발견했다. 이것이 바로 ‘사용할수록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경우다.

낙천적인 사람들은 늘 긍정적

인 태도로 주변을 바라보고 항상 감사히 여기며 부당하고 불공정한 일에 대해서도 그다지 개의치 않는다. 혹은 하늘이 도와줄 것으로 믿는다. 이로 인해 그의 긍정적 사고의 신경계는 활성화될 기회가 비교적 높고, 부정적 사고의 신경계는 사용하지 않아 퇴화하게 된다. 반면 사물의 부정적인 면만 보고 지나치게 트집을 잡거나 비관적인 태도로 대하고 따지는 듯한 자세로 일관하거나 항상 주변에 대해 의심과 두려움을 갖는 사람은 부정적 사고의 신경계가 발달하게 된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긍정적 사고의 신경계는 활성화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신경전달물질 (Neurotransmitter)과 건강

이 외에도 과학자들은 신경세포(Neuron)가 상호간에 메시지를 전달할 때는 ‘신경전달물질’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미 실험을 통해 증명된 바에 따르면 긍정적 사고의 신경계가 분비한 신경전달물질은 세

포의 성장과 발육을 자극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낙천적인 사람은 항상 긍정적 사고의 신경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늘 건강에 이로운 신경화합물질을 분비한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긍정적인 사람들은 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신경계와 면역계가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긍정적 사고의 신경계가 세포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화학물질을 분비할 때 면역계 속에 있는 면역세포도 더욱 활발해져 건강한 면역세포를 더 많이 생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체는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도 커지고 전보다 병에도 잘 걸리지 않게 된다. 암환자가 낙천적인 마음을 가지면 대체로 쉽게 치유된다는 얘기를 우리는 익히 들어 왔다. 반대로 비관적인 환자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갖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그의 신체 면

역계가 부정적 사고의 신경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어서 많은 면역세포가 이미 죽은 상태라 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긍정적 사고의 신경계를 활성화시키자

물론 일반 사람들은 전적으로 낙천적이거나 전적으로 비관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즐겁고 평화롭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미움, 불만, 질투, 불안, 의심의 감정을 피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긍정적 사고의 신경계가 늘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면역계도 점점 강해져 병에도 잘 걸리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긍정적 사고의 신경계도 점점 발달해 우리 마음은 보다 낙천적이고 적극적이 되며, 이렇으로써 발전적인 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최근 들어 이상한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심지어 아주 오래 전에

사라졌던 전염병이 다시 발견되는 것은 아마도 현대인의 마음이 옛날 사람들에 비해 진실되거나 선량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사람들의 신체 세포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병들을 고치기 힘든 것이다.

편집자 주:

요즘 온갖 질병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늘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여 신체의 자연 면역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칭하이 무상사의 말씀처럼 말이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 냅니다. 우리는 자신의 두뇌를 통제해 항상 좋은 말과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몸의 세포가 좋은 생각을 견지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 우리 두뇌와 몸, 그리고 무수한 세포들이 바로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칭하이 무상사/ 2002. 12. 25. 미국 플로리다 크리스마스 국제 선오 -원문 어록략)

사랑의 화신

포모사 시후 센터 장주

어느 날 한 장주가 종이컵에다 보온병에 담긴 뜨거운 물을 따르고 있었다. 스승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는 즉시 컵을 두 개 사용해야 손

이 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 장주는 즉각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며 마치 스승님이 별 말씀을 다 하신다는 투로 대꾸했다. 스승님은 언짢은 기색도 없이 손수 종이컵을 가져다 원래 있던 컵에 겹쳐 놓으셨다. 그러니 정말 원래만큼 뜨겁지가 않았다. 스승님의 이 사소한 행동은 그 장주의 마음

을 오래도록 훈훈하게 해주었다. 그녀는 지난 일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돌보는 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 다른 사람을 돌볼 때 얼마나 엉망일지는 말할 것도 없다고 얘기했다.

또 한번은 스승님께서 대중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비디오 팀이 문득 전등에

스승과 제자 사이



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해 담당자가 이를 검사하게 되었다. 그가 전구에 막 손을 대려던 참에 스승님은 마치 당신 손이 데인 것처럼 소리를 지르시며 그에게 장갑을 끼도록 일깨워 주셨다. 그러나 그 사형역시 습관적으로 “괜찮아요, 스승님.” 하면서 손을 펴 내밀어 전구를 만졌다. 신께 감사하게도 다행히 그는 손이 데이지 않았다. 스승님은 나중에 체면을 구긴다는 생각도 없이 그에게 걱정스런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물으셨다. “정말 뜨겁지 않았어요?”

스승님 곁에 있을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스승님의 사랑과 배려가 세심하기 그지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처음으로 스승님의 보살핌을 받은 사람들은 중

중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한다. 늘 스승님 곁에 있을 기회가 있는 장주들조차 스승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때로는 스승님의 그런 자애로운 행동을 저지하기까지 한다. 아마도 그것은 이 세상에서 스승님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해서일 것이다. 부모와 자식 간이나 부부, 연인 사이에서도 이런 극진하고 세심한 보살핌은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두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스승님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은 후 그 속에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도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사랑의 나라에서 온 지고한 존재는

그 자체가 사랑이며, 사랑을 주는 것은 그의 타고난 천성으로서 받는다는 게 뭔지도 모른다.

이 물질 세계에 내려온 지 너무나 오래된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무장한 채 무욕과 무위, 온전하고 부드러운 본성과는 정반대의 길을 살아간다. 심지어는 이런 방어적인 행동에 우쭐해하고 천국에 있었을 때 모두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도 잊어버린다.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다. “황금시대가 되면 우리는 마치 춤추듯이 걷고 노래하듯이 말을 하며 서로를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바라봅니다. 천국이 바로 그렇습니다.” (칭하이 무상사/ 1999. 11. 26. 남아프리카 터반 -원문 영어)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경지인가!



동물의 유정세계

나의 애완견, 엔젤

부 사저/ 미국 인디애나 (원문 영어)



나와 아이들은 애완동물을 좋아해서 항상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싶어했지만 남편은 우리와 생각이 달랐다. 우리가 입문한 후에는 더더욱 반대해서 그 말만 꺼내면 언짢아했고, 우리는 그 이유를 이해해 그의 생각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다.

오래 전부터 나는 일과 가정 생활로 인해 우울증과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겪어 왔고, 몇 년 전에는 고혈압과 위궤양 같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병도 생겼다. 내 결혼 생활 역시 이 무렵에 많은 위기를 겪게 되자 나는 감정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심정이었다. 나는 현재의 일을 그만두고 남편과 센터를 떠나 어디

멀리 떨어진 곳에 가 은거한 채 명상하면서 스승님의 일을 조용히 하고 싶다는 마음만 굴뚝같았다. 작년 여름에는 정신적인 혼란을 수시로 겪으며 나 자신의 정신 상태가 거의 균형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2002년 9월 인디애나 센터로 쓰고 있는 집에서 스승님과 중서부 주 동수들과의 인터넷 화상

회의가 열렸다. 이때 스승님은 애완동물에 대한 얘기로 말씀을 시작하셨다. 여타 화상회의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유를 생각지 못했지만, 우리는 나중에 스승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족에게 커다란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다음달에 남편은 동료의 집에서 말티즈 종의 하얀 개를 보게 됐는데 너무 귀엽고 예뻐서 그의 마음에 꼭 들자 급기야는 내게 그런 귀여운 강아지를 한 마리 찾아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남편의 생각이 확 바뀐 것이다!

그러고 나서 2002년 12월 2일, 우리 가족은 예의 그 동료로부터 두 달 된 말티즈 강아지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다. 우리는 강아

지에게 ‘엔젤’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우리가 엔젤을 데려오던 날 마침 젖을 떼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었는데, 우연히 같은 날 테네시에 사는 한 동수로부터 스콜피언즈가 부른 ‘나에게 천사를 보내 주세요(Send Me an Angel)’란 노래의 가사를 받게 되었다. 그 아름다운 가사를 읽고 나서 나는 나에게 대한 스승님의 사랑과 배려를 느끼곤 가슴 깊은 감동을 받았다. 우리 집에 ‘천사(엔젤)’라는 식구가 생긴 것도 모른 채 그 노래 가사를 보내 주다니, 정말 놀랍지 않은가! 나는 스승님께서 내 영혼을 고양시키기 위해 천국에서 강아지의 모습을 한 천사를 보내 주신 것처럼 느껴졌다.

엔젤이 오고 나서 나의 생활은

큰 변화를 맞이했다. 엔젤은 나의 영혼을 깊고 어두운 겨울에서 끌어올려 많은 평화와 기쁨, 행복, 특히 사랑을 가져다 준 존재였다. 이는 나와 우리 가족에게뿐 아니라 인디애나 센터에 단체명상을 하러 오는 동수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엔젤은 ‘개는 성가시다’, ‘개는 더럽다’, ‘개는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우리의 편견을 깨트렸다. 엔젤은 채식을 하고, 매우 영리하고 귀엽고 충성스러우며,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고, 집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을 진심으로 반긴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엔젤은 우리를 사랑해 준다. 사랑하는 스승님, 우리의 작은 ‘천사’를 통해 이토록 많은 사랑을 전해 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에게 천사를 보내 주세요

노래: 스콜피언즈

현자는 이 길을 가라고 말하죠

여명의 빛을 향해

세월이 흘러가듯

바람은 당신 얼굴을 스치고

내면 깊은 곳의 이 목소리를 들어요

당신 가슴속의 외침을

눈감으면 알 거예요

어두운 길을 걸어왔음을

나 여기 있어요

내게 천사를 보내 주시겠어요?

나 여기 있어요

샛별의 땅에 있어요

현자는 자기 자리를 찾으라 말하죠

폭풍의 눈 속에서

길 따라 장미를 찾아 나설 땐

가시를 조심하세요

나 여기 있어요

내게 천사를 보내 주시겠어요?

나 여기 있어요

샛별의 땅에 있어요

현자는 말하죠

손을 들어 주문을 외우라고

약속된 땅의 문을 찾으라고

자신을 굳게 믿어 봐요

내면 깊은 곳의 이 목소리를 들어요

당신 가슴속의 외침을

눈감으면 알 거예요

어두운 길을 걸어왔음을

나 여기 있어요

내게 천사를 보내 주시겠어요?

나 여기 있어요

샛별의 땅에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내게 천사를 보내 주시겠어요?

나 여기 있어요

샛별의 땅에 있어요



성왕(聖王)의 어진 도량

청하이 무상사/ 1991. 10. 1. 일본 (원문 중국어)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율은 ‘아힘사’, 즉 ‘비폭력’의 이상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폭력의 이상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주 가난한 한 남자가 망고나무 숲을 지나다가 나무에 매달린 많은 망고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 익은 망고는 너무나도 맛있게 보여 사람을 유혹하는 듯했지요. 그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터라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얼른 돌멩이를 하나 집어 들고는 망고나무를 향해 던지자 큼직한 망고가 몇 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굉장히 좋아하며 망고를 주워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때 마침 왕이 아름다운 왕비, 후궁들과 함께 그 망고 숲에서 체스를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멩이가 날아오더니 왕의 머리를 맞춥니다. 그리하여 운명의 장난으로 가장 가난한 남자와 가장 부유한 사람이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돌은 왕의 머리에 직접 닿지는 않고 모자만 떨어뜨렸습니다. 왕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는 더 이상 그 배경을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

던 왕비와 후궁들, 대신들은 매우 화가 나서 돌을 던진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대체 누가 감히 왕을 향해 돌을 던졌는지 알 수 없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번 일로 왕의 신임을 얻어 볼까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즉시 그 가난한 남자를 잡아 와 즉석에서 재판을 열고는 감히 왕을 살해하려 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신들에게 왜 사형을 선고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던진 남자를 데려오라고 지시하고 그에게 물었지요. “그대는 왜 돌을 던졌는가?” “나무에서 망고를 떨어뜨리려고 그랬습니다.” 남자의 말에 왕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망고는 얻었는가?” “예, 폐하.” “망고는 먹었는가?” “먹었습니다, 폐하.”

왕은 이번엔 대신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가난하고 배가 고파서 돌을 던져 망고를 주워 먹었다. 자, 그럼 한 가지 묻겠노라. 이 사람이 망고를 먹은 뒤 얼마 동안이나 만족스럽겠는가? 배고픔을 얼마나 면하겠는가?” 신하는 “대략 24시간입니다, 폐하. 오늘

하루는 배가 고프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왕이 말했습니다. “그래, 맞다. 자, 이제 내가 판결을 내리겠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지요. ‘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또 있나? 우리가 이미 사형을 선고했는데, 폐하께서는 또 어떤 벌을 내리시려는 거지?’

왕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명컨대, 오늘부터 이 사람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매일 먹을 음식을 가져다 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경제부 장관에게 내 명을 하달하도록 하라.” 모두들 깜짝 놀라며 ‘무슨 이런 벌이 있지? 폐하께서는 왜 이런 판결을 내리신 걸까? 여태껏 들어 본 적이 없는 일이야.’ 하고 속으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옆에 있던 왕비는 자신이 왕을 잘 모신 덕분에 왕이 오늘 기분이 좋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 공이라고 생각하며 웃었지요.

그때 왕이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왕비, 이 망고나무는 유정물ियो, 아니면 무정물ियो?” “망고나무는 의식이 없으니 무정물이지요.” 왕

비가 대답하자 왕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폐하, 어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인간은 만물의 왕이고, 그 중 폐하께서는 인간 중에서도 위대하고 신성하며 덕과 지혜를 갖추신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왕은 계속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왕비여, 내가 의식 있는 존재라 하니 내가 저 나무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어찌 이 인간의 몸을 가질 자격이 있겠소? 신께서 이런 인간의 몸을 주신 게 무슨 쓸모가 있단 말리오?” 왕비는 “폐하께서는 당연히 인간의 몸을 가질 만한 가장 합당한 자격이 있습니다. 신으로부터 가장 인간의 몸을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나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보시오! 저 가난한 자가 돌멩이로 나무를 치자 나무는 달콤한 열매를 주어서 그에게 하루 동안 배고픔을 잊게 해주었소. 그 돌멩이는 또한 나도 쳤소. 내가 만물의 주인이며 인간 가운데에서도 가장 보배로운 존재라 하니, 내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 평생을 배불리 살 수 있도록 하지 않는다면 어찌 저 나무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소! (스승님과 대중 웃음, 박수) 그래서 그에게 평생 먹을 음식을 주라고 한 것이요.”

그러자 왕비와 대신, 부하들은 모두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찬탄했습니다. “대왕이시여, 폐하께서는 진정 보기 드문 성인입니다. 오직 신이랴 폐하처럼 자비롭고 관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폐하 안에 계십니다. 폐하의 공덕과 복, 사랑은 부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으며 그 모든 대성인과의 같습니다. 폐하 같은 왕만이 사람들이 사랑과 자비, 내면의 우주적 사랑의 힘을 계발하도록 힘을 줄 수 있습니다. 폐하께서 그런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국민들도 서로를 사랑하고 도우며 각자의 친구의를 정화하고 심신을 닦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디 저희 모두 폐하의 종으로 영원히 따를 수 있게 하소서.”

아주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래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나무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무를 치거나 흔들면 과일을 떨어뜨려 먹을 것을 주지만, 사람을 흔들거나 때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때려 죽이려 할 겁니다. (대중 웃음) 어떤 사람은 정말 나무만 못합니다!



감로법어

평화의 길

청하이 무상사/ 2001. 6. 6.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14

나는 세계 각국의 대통령,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측면만 얘기할 게 아니라 영적인 측면을 상기시키도록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측면이 더 오래 지속되니까요. 사람들에게 수행에 대해 상기시켜 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수행은 우리가 가진 전부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 유일하게 영속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로지 수행을 해야만 세계가 평화롭고 국가 간에 평화롭습니다. 모든 나라가 더욱 깨닫는다면 우리 역시 서로 더욱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성인 등 각 연령별로 분류된 스승님의 최신 추천 영화 리스트이다. 미국 영화 등급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G) 일반 관객, 모든 연령층 시청 가능.

(PG) 부모의 지도 장려, 아동에게 부적합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

(PG-13) 부모의 주의 요망, 13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부적합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

(R) 17세 미만의 경우 부모 동반이나 성인의 지도 필요.

(TV) TV 영화는 일반적으로 등급이 매겨지지 않음.

(*) 제한 없음.



실사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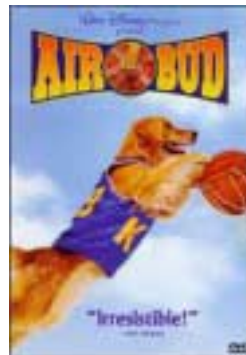
- PG-13 배드 컴패니 (2002)
- PG-13 캐치 미 이프 유 캔 (2002)
- R 시티 바이 더 씨(City by the Sea) (2002)
- R 그린핑거(Greenfingers) (2000)
- PG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 (2002)
- PG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2001)
- * 라간(-옛날 인도에서) (2001) - 인도 영화
- PG 서양경(西洋鏡) (2000) - 중국 영화
- PG 소림 축구 (2001) - 중국 영화
- PG-13 시몬 (2002)
- PG-13 엠파러스 클럽 (2002)
- * 변검 (1996) - 중국 영화
- PG 미라클 워커(The Miracle Worker) (2000)
- G 루키 (2002)
- PG 투씨 (1982)

동물 영화

- G 에어 버드: Seventh Inning Fetch (2002)
- * 참아 주세요(Bear with Me) (2000)
- G 베토벤 4 (2001)
- TV Gentle Ben (2002)
- PG-13 K-9: P. I. (2002)
- PG 사커 독 (1998)
- TV The Retrievers (2001)
- * 토마시나의 세 가지 삶(The Three Lives of Thomasina) (1963)

애니메이션

- PG 아이스 에이지 (2002)
- G 몬스터 주식회사 (2001)
- PG 슈렉 (2001)



마야의 속박에서 벗어나라

썬피 사형/ 캐나다 온타리오 런던 (원문 영어)



동수들과 함께 미시간 센터에서 매트릭스(1999)라는 멋진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 나는 고양감과 자유로움을 느끼며 매우 재미있게 보았다.

이 영화는 인류가 인공지능(AI)을 만들어 내 결국엔 AI 기계의 노예로 전락해 그 에너지원이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AI 기계는 인간의 두뇌에 가상 현실을 심어 주는 최첨단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매트릭스 안에 신생아를 안치하고, 이에 따라 인간은 평생을 환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각과 인상은 수많은 튜브와 컴퓨터를 통해 매트릭스가 뇌로 전송해 형성되는 가상의 비전에서 비롯된 것이다. 매트릭스의 실체를 발견한 모피어스와 그의 동료가 AI의 통치로부터 인류의 문명을 구하기 위해 도전하면서 일대 격전이 벌어진다.

모피어스는 매트릭스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눈을 덮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세계... 그리고 그 진실이란, 우리는 노예로서 속박 속에 태어났으며 두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라는 것이다.” 이 묘사를 보면 매트릭스는 수행자들이 말하는 ‘마야’를 상징하며, 전사들이 매트릭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은 바로 수행자가 마야, 삼계의 지배에서 해탈하고자 하는 열망과 완전히 똑같음을 알 수 있다!

주인공인 네오는 컴퓨터 해커로서 사이버 세계의 현실에 대해 진지한 의문을 품고 수많은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많은 방법을 시도하던 중 모피어스와 그의 동료들을 만나게 된다. 모피어스는 네오를 매트릭스의 지배에서 인류를 해방시킬 예언의 ‘구세주’로 믿는다. 유일한 문

제는 네오 자신이다. 네오는 강력한 AI 인간들과 대항할 자신의 능력에 믿음을 갖지 못하다가, 내면의 힘을 최대한 발휘해 자기를 희생해 동료들을 구해 내는 영화의 절정에 이르러서야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다. 다른 주인공인 트리니티는 네오를 순수하게 사랑하며 그가 인류를 구할 유일한 존재라는 진실을 깨닫게 해준다. 마침내 네오는 다시 한 번 AI 인간과 결전을 벌이고 그들에게 맞서 승리한 최초의 인간이 된다. 이 결말에 대해 관중들은 매우 큰 감동과 만족을 느끼게 된다.

이 영화는 많은 점에서 우리의 수행과 유사하다. 네오가 인류를 구원하기 전 많은 시련과 시험을 겪어야 하듯이, 우리 역시 관음법문을 수행해야만 자기 자신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이 영화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두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수행하고 신을 믿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려움에 용감하게 맞서고 다른 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 등등이다. 그 중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매트릭스를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아주 강하게 전심을 다해 믿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오하이오 소식

노숙자들과 사랑과 행복을 나누다

새해 연휴 기간 동안 오하이오와 중서부 주 동수들은 신시내티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스승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노숙자 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제는 연례 행사가 된 이 행사는 2003년 1월 첫째 주 주말에 진행되었다.

오하이오는 1월 초에 날씨가 매우 춥기 때문에 우리는 노숙자들에게 고급 스웨터를 선물로 주고 싶었다. 다행히 한 사저가 도매 가격으로 250장의 스웨터를 살 수 있어서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사저는 이 활동을 위해 수백 개의 샌드위치 빵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그녀가 빵을 사러 한 가게에 들렀을 때 그곳 매장 책임자는 빵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궁금해했다. 그녀가 노숙자들에게 줄 빵이라고 하자 책임자는 샌드위치 빵을 무료로 지원해 주었다.

2003년 1월 4일 새벽 단체명상을 마친 동수들은 오하이오 센터에서 신시내티 시내에 있는 노숙자 보호소로 출발했다. 보호소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를 보자 매우 반가워했다. 우리가 음식을 담은 큰 접시를 다 정리해 놓자 사람들은 줄을 서서 한 사람씩 음식을 받아 가기 시작했고, 이후 두 시간 동안 수백 개의 채식 샌드위치와 손수 만든 채식 에그롤, 샐러드, 과일, 탄산음료 등을 즐겼다. 음식 배식대 끝에는 스웨터가 수북이 쌓인 선물 탁자를 놓아두고 그 옆에는 스승님의 대형 법상을 걸어 두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쳐다보며 우리에게 명상법에 대해 물었다.

한 연로한 노숙자는 스승님의 사랑과 관심에 매우 감동해 한 사저에게 잡지에 실린 자비와 사랑에 관한 시를 선물했다. 그는 말로는 잘 표현할 수 없어서 시라도 선물하고 싶었다며 우리 입문자들을 가리켜 자비



노숙자들에게 스승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동수들.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 노숙자 보호소에서 작업 팀 동수들이 점심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스승님이 자애롭게 바라보시는 가운데 보호소의 노숙자들이 동수들이 준비한 채식 음식을 즐겁게 먹고 있다.

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우리 또한 그가 해주는 감사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스승님의 가피 속에서 우리는 2003년 새해 노숙자 돕기 활동을 하면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신년 연휴 동안 사랑과 기쁨을 듬뿍 가져다 줄 수 있었다. 우리는 이번 일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행사가 순조롭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신 스승님의 완벽한 안배를 보며 끊임없이 감탄했다. 또한 이로써 스승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며 모든 것을 안배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가 자세히 살피기만 한다면 매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 퀘벡 소식

사랑의 활동으로 새해를 알리다

2003년 2월 1일 토요일, 음력 초하루에 몬트리올 센터 동수들은 스승

님께서 보내 주신 3천 달러의 성금을 몬트리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과 노숙자들에게 나눠 주며 그들에 대한



몬트리올 시내 중심가에서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옷과 샌드위치를 나눠 준다.

스승님의 꺼지지 않는 사랑과 관심을 전했다.

매년 스승님은 어울락 예술가들과 언론 매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신다. 이에 우리는 음력 설이 되자 바로 그들을 방문해 스승님의 특별한 새해 선물과 돈이 든 빨간 봉투(중국의 전통적인

새해 선물), 스승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달했다. 그들 역시 해마다 잊지 않고 사랑이 가득 담긴 선물을 보내 주시는 스승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몬트리올 동수들은 차로 몬트리올 전역을 돌고 또 지하철 주변을 걸으며 노숙자들에게 특별히 준비한 채식 샌드위치와 따뜻한 옷을 나눠 주었다. 그리고는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구세군 측에 선물을 기증하면서 행사를 마무리지었다.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이 햇살처럼 두루 퍼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의 얼굴에는 행복과 감사의 미소가 떠올랐으며, 이 행사는 동수들과 노숙자 형제자매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다음날 몬트리올 센터는 몬트리올 체육관에서 열린 음력 설 축제에 참가했다. 저녁 무렵 우리의 초청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스를 찾아왔는데, 대부분이 캐나다에 이주한 지 얼마 안 되는 이들로써 모두 스



새해 선물을 받은 어울락 사람들이 스승님께 보내 온 감사 편지.

승님의 사랑과 새해 선물을 받아갔다.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모두 감사 편지를 보내 와 스승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축복을 전했다.



몬트리올 센터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선물과 음식을 준비하는 동수들.



구세군의 노숙자 센터를 방문하다.

빈곤 가정과 노숙자에게 보낸 청하이 무상사의 명절 선물 지출 내역

내역	금액(캐나다 달러)	영수증
설 명절을 위한 차, 후식거리, 사탕, 설 떡	417.41	A
쌀, 떡	954.92	B
기초 생필품(치약, 칫솔, 비누 등), 빈민 가정과 예술가에게 전한 성금	1563.83	C
노숙자와 빈민 가정에 전달한 수건, 모자, 목도리	1010.83	D
잡화	43.82	E
전시 부스 대여료	600	
합계	4,590.81 (=US\$3,013.73)	





태국 방콕 소식

사랑의 새해 선물



태국 동수들이 방콕의 노숙자들을 찾아가 새해 선물과 함께 스승님의 사랑을 전하다.

대부분 사람들이 즐겁게 새해를 맞이하는 동안 방콕의 가난한 사람들이 어렵게 지내는 모습을 본 태국 동수들은 도시의 노숙자들에게 새해 선물을 나눠 주어 환한 웃음과 스승님의 사랑을 함께 가져다 주기로 결정했다.

열심히 선물을 구매한 동수들은 이어서 노숙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두 곳으로 향했다. 그 중 월람퐁 (Hualumpong) 기차역 통로에는 집 없는 아이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가여운 아이들은 사형사자들이 주는 선물을 받고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했다.

또 한 곳인 차오프라야 강 근처에는 가난한 가정들이 프라핀클라오 다리 밑에 모여 살고 있었다. 그 중 한 노인은 우리의 선물과 전단지 받고는 스승님의 사진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다. 그 자리에 함께했던 동수들은 그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고, 이런 의미 깊은 활동을 통해 스승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이 불우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음에 기뻐했다.

포모사 종합 보도

포모사 타이난 소식

명절에 스승님의 사랑을 전하다

어려움에 처한 동포들이 따뜻하고 즐거운 설을 보내도록 타이난 동수들은 2003년 1월 19일 타이난, 리우잉, 마포우, 신잉, 옌쉐이, 지아리 등의 지역을 방문해 이곳의 어려운 세대들에게 빨간 봉투와 과자, 과일 등의 선물을 전했다.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깨끗하고 강인한 정신력을 갖고 있었다.

동수들은 그들에게 스승님의 사랑과 관심을 전하면서 자신들이 받은 무한한 축복

을 소중하고 감사히 여기게 되었다.



재소자들을 위한 영혼의 고양

타이난 동수들은 최근 타이난 교도소와 밍더 개방 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동수이자 의사인 메이 박사가 암을 치료한 자신의 경험을 함께 나누며 재소자들이 음식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도록 도움을 주었다.



해변 청소 활동 표창

1월 21일 타이난 시정부는 공익단체들에 대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또한 장기간 참여해 온 환경보호와 해변 청소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에 포함돼 쉬티엔차이 타이난 시장으로부터 직접 상을 수여받았다.

를 인정받아 수상자에 포함돼 쉬티엔차이 타이난 시장으로부터 직접 상을 수여받았다.



포모사 창화 소식

장애우에게 사랑을 보낸다

2003년 1월 23일 천사복으로 갈아입고 사랑이 넘치는 천사로 변신한 창화 동수들은 창화 장애 어린이의 집을 방문, 그곳 어린이들에게 스승님의 사랑을 한아름 안겨 주었다. 어린이들은 스승님의 '할렐루야'에 폭 잠긴 채 동수들과 함께 체조하고 빨간 봉투를 선물받으면서 얼굴 가득 밝은 미소를 띄우며 설을 앞두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끽했다.

스승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 두 배의 기쁨

을 얻을 수 있으며 외면상으로는 그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배울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동수들의 얼굴마다 이러한 내면의 수확을 엿볼 수 있었다.



포모사 타이퐁 소식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최근 타이퐁 현 위엔린 향 타이반 초등학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방과 양방 의료 검진과 이발 등의 봉사 활동을 펼쳤다.



포모사 핑둥 소식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은 최근 핑둥 후비호(湖)에서 해변 청소 활동을 전개했다.



종교단체의 추운 겨울 온정 나누기

완루안의 저소득 가정, 일용품과 이불 등을 제공받다

[완루안, 왕룽신 기자 보도]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핑둥 현 완루안 향 신즈 촌에서 저소득층 가정과 실업으로 살림이 어려운 가정에 이불 등의 일용품과 성금을 전달하는 ‘추운 겨울 온정 나누기’ 활동을 펼쳤다. 이에 쉬통성 완루안 향장은 국제협회의 회원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어제 아침 씨에산쥬 신즈 촌장의 사무실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나누는 사랑의 활동을 진행했다. 9명의 협회원은 신즈 촌의 저소득 세대에 이불을 나누어 주면서 이 새 이불이 그들의 삶에 따사로움을 가져다 주길 바라고, 새해에는 생활이 보다 나아지길 기원하였다. 또한 실업으로 생활이 곤란한 가정에도 성금 4,500NT를 전달해 이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직업을 찾아 생활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희망하였다.

쉬통성 향장은 나중에 국제협회를 직접 방문해 주민들에게 보여

대만시보

2003년 1월 21일 화요일 (원문 중국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가 완루안 향 신즈 촌에 이불을 전달해 가난하고 소외된 주민들을 위로하다. (왕룽신 기자 촬영)

준 따뜻한 관심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2002년 11월부터 12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자선 활동 지출 내역 (단위: 대만 달러 NT)

표 1: 2002년 11월, 12월 포모사 각종 자선 활동 지출 내역

(단위: 대만 달러 NT)

장 소	일 자	내 역	금 액	부 록
타이난	2002. 11. 27.	타이난 밍터 개방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교양 세미나 개최 및 명상법 지도(동수 지원)	0	
타이난	2002. 11. 28.	타이난 교도소 방문, 영성 교양 세미나 개최(동수 지원)	0	
타이퐁	2002. 12. 14.	타이퐁 위엔린 향 타이반 초등학교에서 벽지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 양방 의료 검진 및 이발 봉사 활동	14,279	A
타이난	2002. 12. 14.	타이난 시 환경보호국의 환경보호 캠페인에 동참, 골든 코스트 해안 청소 활동	1,010	B
원린	2002. 12. 25.	원린이 주최한 포모사 종교 엑스포 참여	15,000	C
타이난	2002. 12. 25.	타이난 밍터 개방 교도소 방문, 재소자들을 위한 영성 교양 세미나 개최 및 명상법 지도(동수 지원)	0	
타이난	2002. 12. 26.	타이난 교도소 방문, 영성 교양 세미나 개최 및 명상법 지도(동수 지원)	0	
총 액			NT\$30,289	



표 2: 2002년 11월부터 12월까지 포모사 빈민 가정 돕기 지출 내역

(단위: 대만 달러 NT)

지 역	2002년 11월		2002년 12월		부 록
	가구 수	금 액	가구 수	금 액	
지룽	1	2,000	1	2,000	1
타이베이	7	19,000	6	16,000	2
타오웬	1	2,000	1	2,000	3
신쭈	1	3,000	1	3,000	4
타이쑹	5	17,000	5	17,000	5
난토후	7	26,000	7	26,000	6
지아이	3	8,000	3	8,000	7
타이난	1	4,000	1	4,000	8
까오슝	3	10,000	3	10,000	9
핑퐁	3	10,000	3	10,000	10
타이퐁	3	10,000	3	10,000	11
핑후	2	5,000	2	5,000	12
소계	37	\$116,000	36	\$113,000	
총계	NT\$229,000				



표 1, 표 2의 전체 지출 금액: NT\$ 259,289 (미화 약 7,450.83달러)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전세계 자선 활동 지출 내역

수혜 국가	일 자	내 역	금 액	미국달러 환산액	관련 뉴스 잡지
캐나다	2002년 2월	어울락 빈민 가정에 새해 선물	US\$2,028.06	US\$2,028.06	132
필리핀	2002년 4월	나병촌 주민 돕기	US\$2,195.00	US\$2,195.00	136
프랑스	2002년 9월	프랑스 남부 홍수 이재민 돕기	€1,000.00	US\$1,055.00	140
콜롬비아	2002년 12월	'즐거운 믿음과 희망의 어린이 기금' 에 성금 전달	US\$5,200.00	US\$5,200.00	140, 141
포모사	2002년 1월-12월	매달 빈민 가정에 위문금 전달	NT\$1,341,700.00	US\$38,889.86	133, 135, 137, 139, 140, 142
포모사	2002년 1월-12월	각종 자선 활동 및 사회 봉사 활동	NT\$461,088.00	US\$13,364.87	132, 133, 135, 137, 139, 140, 142
총		계	US\$62,732.79		



포기라니, 무슨 말씀!

칭하이 무상사/ 2001. 12. 28.
미국 플로리다 센터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35

한 엄마가 젊게 보이게 해준다는 신제품 화장품을 사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얼굴에 겹겹이 발랐어요. 어린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물었지요.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응, 더 젊고 예쁘게 보이려고 이걸 얼굴에 바르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한 시간 뒤 엄마가 티슈로 크림을 다 닦아 내자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벌써 포기하신 거예요?”

하느님의 글자 맞추기 놀이

칭하이 무상사/ 2001. 12. 28.
미국 플로리다 센터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35

어린 소녀가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방 앞을 우연히 지나던 할아버지는 손녀가 무슨 기도를 하나 엿들어 봤습니다. 하지만 들리는 것이라곤 “A, B, C, D, E, F...” 하며 알파벳을 처음부터 끝까지 읊는 소리뿐이었습니 다. 손녀가 계속 그런 식으로 외우자 할아버지가 물었지요. “애야,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손녀가 대답했어요. “기도하고 있지요.” “그런데 무슨 기도가 그러냐?” 할아버지의 말에 손녀는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요. 그래서 알파벳을 전부 외워 드렸으니까 하느님이 알아서 말을 만드실 거예요!”



병원이여 안녕! 돈도 안녕!

칭하이 무상사/ 2001. 12. 28.
미국 플로리다 센터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735

어떤 환자가 길에서 우연히 자신을 담당했던 의사를 만나 안부를 나눴습니다. 의사가 “좀 괜찮은가요?” 하고 묻자 환자가 말했어요. “예,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선생님이 제 발이 나으면 즉시 걷게 될 거라고 장담하셨잖아요.” “거 봐요. 내가 그랬잖아요. 언제부터 걷게 됐지요?” 의사의 물음에 환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께 치료비를 지불하고 차를 판 다음부터요!”

스승님의 위 농담을 동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142/jk1.htm>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new/142/jk1.htm>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net/eng/new/142/jk1.htm> (미국)

2003년 스승님의 음력 설 메시지에 대한 감회

글: 씨아오옌

2003년 음력 설날, 스승님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 심장한 축복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내가 봤을 때 스승님의 축복은 2003년에 대해 예견하신 것으로 세세히 음미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나는 스승님이 올해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계심을 느꼈다. 스승님 말씀대로 우리 각자가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서부터 크나큰 깨달음을 얻는다면 얼마나 흥분되고 고무적이겠는가?

스승님은 또한 우리의 삶이 기적과 행복, 사랑과 지혜로 가득하기를 축복하셨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이 축복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낱 동화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 입문한 후 매일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동수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알맞고 진실한 축복이다. 우리가 세심히 관찰해 본다면 일상생활이 말로는 다 못할 신기한 감응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소망이 실현되고 신이 시시각각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고 인도하시는 것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정말 행복하고도 즐거운 느낌이다! 또한 우리의 지혜안은 이미 열려 있고 신의 사랑의 바다와도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사랑과 지혜는 끊이지 않



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발전하고 있다. 전세제인들이 우리와 함께 이런 기적과 행복,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기원해 본다. 그러면 얼마나 경이롭겠는가! 그러나 그러기 위해선 먼저 영성의 깨달음이 전제되어야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구절에서 스승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기대하셨다. “삶의 새로운 장에 있어서 신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성공이 되기를.” 우리들 모두는 일이 변영하고 가정이 변영하고 국가와 세계가 변영하길 바란다. 하지만 수행자로서는 영적인 큰 깨달음을 얻었을 때 삶이 새로운 장에 접어들고 신의 축복이 우리에게 가장 진귀한 성공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신의 축복이 있고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한 그 힘과 연결된다면 그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없겠는가?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최대의 변영이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길 만한 것이다. 관음법문을 수행한 후 우리 동수들은 이 방면에서 많은 실제적인 체험을 갖고 있으므로 스승님의 말씀 속에 담긴 숨은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다.

관음사자의 여행일지



인연 있는 사람을 제도하다

관음사자

중국 사천성에 사는 한 중년 부인은 독실한 불교신자로 종종 절에 다니며 예불을 하곤 했다. 그러다 2년 전 어느 날에는 갑자기 완전 채식을 하기로 발원했다.

그날 밤 그녀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짧은 머리에 하얀 법복과 흰 조끼를 입은 남자 스승을 보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대단히 위엄 있었다. 그녀가 사람



들 뒤편에서 그 스승을 향해 절을 하자 스승은 자비롭게도 손을 뻗어 그녀를 일으켜 세워 주었다. 그리고는 “앞으로 나를 만나고 싶으면 여기 이 사람들 중에 내 제자가 있으니 그들을 찾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꿈에서 깨고 나서 그녀는 그 스승을 찾기로 결심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꿈속에서 그 스승은 그곳에 자기 제자들이 있으니 찾아가면 된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이들이라서 그녀는 마음이 다급해졌다. 그러다 나중에 친구 중의 한 사람이 어떤 법문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생각나 그 친구에게 좀 알아보기로 했다. 사실 그 친구는 이미 스승님께 입문을 한 사람이었는데, 그녀의 이상한 꿈 얘기를 듣고 나서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보여 주었다. 그

부인은 견본책자의 표지에 실린 스승님의 법상에서 매우 밝은 빛이 뿜어 나오는 것을 보고 매우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해 그 책을 빌려 왔다.

평소 그녀는 눈이 안 좋아서 책을 읽을 때면 글자가 잘 안 보이곤 했다. 그러나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읽을 때는 놀랍게도 글자 하나하나가 빛을 발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글을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 견본책자를 다 읽은 그녀는 법회로 충만해 칭하이 스승님이 바로 자신이 찾던 그 스승이라고 인정하게 됐고 스승님께 입문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스승님의 다른 사진들에서도 빛이 나는 것을 보았으며, 최근에는 마침내 입문을 해서 스승님을 따라 수행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이루게 되었다!

곤경에 처한 제자를 구해 주시다

중국 칭하이(靑海)성에 사는 한 연로한 사저는 한때 살림이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4년 전, 음력 설이 되었는데도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 친구에게 돈을 빌려야 했다. 그리고 나서 시일이 좀 흘러 길에서 그 친구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자 사저는 너무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말했다. “정말 미안해! 아직 돈이 없어서 돈을 갚을 수가 없었어.”

그런데 그 친구는 오히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빌려 간 돈은 이미 갚았잖아! 어떤 부인이 대신 주고 갚는걸.” 하고 반문하면서 그 부인의 외모와 생김새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사저는 얘기를 듣자마자 스승님께서 화신으로 나타나 돈을 갚아 주셨다는 것을 직감했고, 스승님께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저는 작은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점점 번창해서 지금은 생활이 크게 나아졌다.

장의사에서 생긴 기적

중국 Ningxia(寧夏)성에 사는 한 사저의 어머니가 1년 전 세상을 떠났다. 그 어머니는 입문을 하지도 않았고 채식도 안 했지만 매장을 위해 시신을 장의사로 옮겼을 때 매우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다.

당시 장의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어머니의 시신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어제 어떤 노부인이 오색 연꽃에 앉아서 우리 장의사를 날아다니는 걸 우리 식구들이 다 봤답니다. 그 할머니는 이곳을 일곱, 여덟 바퀴 돌더니 날아갔는데, 이 할머니의 모습과 완전히 똑

같았어요!” 그러면서 직원은 “이 할머니가 채식하고 수행했나요?” 하고 물었다. 사저의 가족이 아니라고 대답하자 직원은 “그러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채식하고 수행하는 게 틀림없군요. 그렇지 않다면 이 부인이 그렇게 멋진 경지에 갈 리가 없지요.” 하고 말했다.

사저는 이 신기한 감응을 듣고는 매우 기뻐하며 스승님께서 어머니를 높은 경지에 데려간 것이라고 믿었다. 또한 이로 인해 스승님에 대한 신심도 깊어지고 이때부터 더욱 열심히 수행하게 되었다.

Quan Yin Web Sites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 (포모사-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영어)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SM 경서조)
<http://www.godsim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한국어)
<http://www.qyitv.com> (한국-한국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 (일본-일본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id/>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어)
<http://www.godsdirectcontact-thai.com/> (태국-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net> (미국-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스페인어, 불어, 영어, 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http://www.contactodirectocondios.org/> (미국-스페인어)
<http://www.CauThongVoiThuongDe.com>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video/> (미국 Windows Media Video & Real Video-다국어 지원)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 (프랑스-프랑스어)
<http://godsdirectcontact.rma.cz/> (체코 공화국-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 Real Audio 지원-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radio/aulac/> (캐나다 Real Audio & MP3-어울락어 유니코드)
<http://www.godsdirectcontact.de/> (독일-독일어)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 (오스트리아-독일어)
<http://quanyin.narod.ru/> (러시아-러시아어)
<http://www.contatodiretocomdeus.com.br> (브라질-포르투갈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 주문-영어)

E-메일로 잡지를 받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service/service.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rvice/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service/service.htm>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glish/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spanish/service.htm> (스페인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fan/service.htm> (중국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jian/service.htm> (중국어 간체)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50개 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board_m/bbs.php3?table=SMCH2_22&query=list&p=1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publication/sample/sample.htm>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아프리카

★ 앙골라	센터	244-92-338082 luandacentre@yahoo.com
★ 베닌	센터	229-383-982 smbenin@yahoo.fr
★ 카메룬	센터	237-34-37232 smcameroon@hotmail.com
두알라	센터	233-27-607-528 smghanac@yahoo.com
★ 가나	센터	254-72-603953 atmoske@yahoo.com
★ 케냐	센터	
★ 모리셔스	Mr. Liang Dong Sheng	230-208-1758 smchmauritius@intnet.mu
포트 루이스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ius@intnet.mu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 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더반	센터	27-31-368-7759 durba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11-880-0349 ghvosloo@mweb.co.za
	Ms. Dieketseng Napo	27-83-456-3968 dnapo@webmail.co.za
★ 토고		
팔리메	센터	228-4-410-948
로메	센터	228-2-222-864 smtogo@yahoo.com
	Mr. David Chine	228-2-215-551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backhome25@hotmail.com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7-2039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브라질		
벨렘	Mr. Wei Cheng Wu	55-91-2234424 55-91-2746611 belemcenter@yahoo.com.br
레시페	Ms. Salma Casierra Alvarez	55-81-3262912
상파울루	센터	55-11-5904-3083/ 5579-1180 br_center@yahoo.com.br
★ 캐나다		
에드몬톤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dangvansang@hotmail.com
킹스턴	Mr. Quang Thanh Le	1-613-384-3295
런던	센터	1-519-438-3702 unisel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smchmontreal@look.ca
	Ms. Euchariste Pierre	1-514-277-2717 p_eucharistel@sympatico.ca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phathung20@yahoo.ca
오타와	Mr. & Mrs. Nai-Chi Hsu	1-450-647-4871
	Mr. Tuan Duong	1-613-565-0862 et323@ncf.ca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Ms. Diep Hoa	1-905-828-2279 hoadiep0723@yahoo.com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연락인 사무실	Ms. Li-Hwa Liao	1-604-580-4087 jsung99@shaw.ca
Ms. Sheila Coodin		1-604-580-4087 qycontactperson@yahoo.ca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nguyen2002@yahoo.com
★ 칠레		
라 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타야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 콜롬비아		
보고타	Mrs. Blanca Elizabeth Pedraza	57-1-6240217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401@hotmail.com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멕시코 시티	Ms. Sylvia Lagrange	52-686-568-4575 eternalmaster2002@yahoo.com.mx
멕시코 D.F.	센터	52-55-5752-7472/ 5639-3506 kamel@igo.com.mx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ccenter@adatel.net.mx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dl Suffo	52-8-379-0897 mtycenter@starmedia.com
★ 니카라과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roxanavet@hotmail.com
★ 파나마		
센터	Ms. Maritza E. R. de Leone	507-236-7495 507-260-5021 mrleone@hotmail.com
★ 파라과이		
아송시온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2-523684 ec_py2002@yahoo.com.ar
★ 페루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entro@yahoo.com
리마	센터	51-1-4716472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edyter@viabcp.com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트루히요	Mr. Luis Rebaza	51-44-260871 larv@terra.com.pe
★ 살바도르		
산 살바도르	Mr. Manuel Menjivar	503-216-9413 quijano_manuel@yahoo.es
★ 트리니다드 섬		
Mr. Ray Alibocus		1-868-637-1054 alibocus@tsst.net.tt
★ 미국		
애리조나 :	센터	1-602-264-3480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kennynngoaz@hotmail.com
아칸사스 :	Mr. Robert Jeffreys	1-501-253-8287 bodedj@cox-internet.com
캘리포니아 :		
*로스앤젤레스	센터	1-909-674-7814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lin54@hotmail.com
	Mr. & Mrs. Dong Phung	1-626-284-9994 SanGabriel99@hotmail.com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martin0999@hotmail.com
*새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saccenter.ca@usa.com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fcenter@hotmail.com
*산호세 Ms. Sophie Lapaire 1-650-988-6500
Sophie.Lapaire@eng.sun.com
Mr. & Mrs. Edgar Shyuan 1-408-463-0297
Edgar-Teresa@worldnet.att.net
Mr. Loc Petrus 1-510-276-4631
petrusl2k@earthlink.net
Mr. Jim Su 1-408-253-8516
SumaJim@aol.com
Mr. James Kiet Le 1-408-262-8233
thanhgiang1990@yahoo.com
*콜로라도 :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torahi@ureach.com
*플로리다 :
*케이프 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941-458-2639
Thaidbzad@msn.com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tls1095@earthlink.net
*올랜드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ekalbekim@yahoo.com
*조지아 : 센터/ Bhiksuni Chan Mo 1-770-936-9926
georgiacenter@hotmail.com
Mr. James Collins 1-770-934-2098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하와이 : 센터 1-808-735-9180
hawaiictr@hotmail.com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DorothySakata@aol.com
*일리노이 :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tran@yahoo.com
*인디애나 : Mr. & Mrs. Duc Vu 1-317-293-5303
Duchanh@aol.com
*켄터키 : 센터 kycenter2000@yahoo.com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NGUYEN@MAIL.STATE.KY.US
*루이지애나 : Mr. John L. Fontenot 1-504-483-3234
jlfontenot@hotmail.com
*메릴랜드 :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MARYLANDCENTER@yahoo.com
*메사추세츠 :
*보스턴 센터 1-978-436-9982
shinemound@earthlink.net
Ms. Gan Mai-Ky 1-508-791-7316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미시간 :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mading02000@yahoo.com
*미네소타 :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001@msn.com
*미주리 :
*제퍼슨 Ms. Mary E. Steck 1-573-761-9969
MSteck5208@aol.com
*롤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umr.edu
*네브라스카 : Ms. Celine Robertson 1-402-483-4067
croberts@lps.org
*네바다 :
*라스베가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뉴저지 : 센터 1-973-209-1651
c_newjersey@yahoo.com
Mr. Chang Sheng Chou 1-973-335-5336
JohnChou@ymusa.com
*뉴멕시코 :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anawarskas@hotmail.com
*뉴욕 :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dong@phys.columbia.edu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716-256-3961
dcouch@rochester.rr.com

*노스캐롤라이나 :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오하이오 :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ohiocenter@yahoo.com
Mr. Gilbert Rivera 1-937-746-3786
wisdmeye@aol.com
*오클라호마 :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aol.com
*오리건 :
*포틀랜드 Ms. Vera Looijenga 1-503-234-1416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oregon_center90@yahoo.com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youping320@yahoo.com
*펜실베이니아 : Mr. & Mrs. Diep Tam Nguyen 1-610-352-7787
DiepAshleyPa@aol.com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텍사스 :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jdauw@yahoo.com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tranduongdean@yahoo.com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DallasCenter@yahoo.com
Mr. Tim Mecha 1-972-395-0225
t.mecha@attbi.com
Mr. Weidong Duan 1-972-517-5807
water96@yahoo.com
Mr. Jimmy Nguyen 1-972-206-2042
DallasCenter@hotmail.com
*휴스턴 센터 1-281-893-8300
CHINGHAI_TX@sbcglobal.net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cadamson@houston.rr.com
Mr. & Mrs. Charles Le Nguyen 1-281-251-8812
cuc.le@sbcglobal.net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robert.yuan@hp.com
*샌 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6088
lethong@hotmail.com
*버지니아 : 센터 1-703-941-0067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anhhy@hotmail.com
*버지니아 비치 Mr. David Young 1-757-588-8468
davidkyoung@hotmail.com
*워싱턴 :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benptran@aol.com
Mr. Edward Tan 1-206-228-8988
edtan@usa.com
*와이오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sumaemc@yahoo.com
★ 푸에르토리코
카뮈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 1-787-262-1874
disnalda@caribe.net
아시아
★ 포모사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tpe.light@msn.hinet.net
Mr. & Mrs. Loh, Shih-Hung 886-2-2706-2628
shloh@ndmctsg.hk.edu.tw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Mr. Chu, Chen Pei 886-37-724726
까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534693
★ 홍콩 센터 852-27495534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joyandlove3@hotmail.com
★ 인도
मुंबई Mr. Suneel Ramaney 91-22-282-0190
trust_god@rediffmail.com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655-6741



★ 인도네시아

발리	센터	shive@cal.vsnl.net.in	62-361-231-040
	Mr. Agus Wibawa	smch_bali@yahoo.com	62-81-855-8001
자카르타	센터	wibawa001@yahoo.com	62-21-6319066
	Mr. Tai Eng Chew	smch-jkt@dnnet.net.id	62-21-6319061
	Ms. Lie Ik Chin	62-21-6510218	
	Ms. Murniati Kamarga	finance1@ueii.com	62-21-3840845
	Mr. I Ketut P. Swastika	hai@cbn.net.id	62-21-7364470
마젤랑	Mr. Njo Kwat Gone	62-293-367-031	
		irn_up@yahoo.com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yudi_wartono@telkom.net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메단	Mrs. Merlinda Sjaifuddin	62-61-4514656	
		smch_medan@hotmail.com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ahimsasb@indosat.net.id	
	Mr. Harry	62-31-594-5868	
		harry_l@sby.dnet.net.id	
욕야카르타	Mr. Augustinus	62-274-588-105	
		t.adianingtyas@eudoramail.com	
★ 이스라엘	Mr. Yaron Adari	972-9-866-6247	
		ya05@netvision.net.il	

★ 일본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divinalv@mtb.biglobe.ne.jp	
다테야마	센터	81-470-209127	
		tateyama_lg@yahoo.co.jp	
도쿄	Ms. Yukiko Sugihara	81-3-3307-1643	
		cal13840@pop07.odn.ne.jp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y-plus@f6.dion.ne.jp	

★ 한국

	출판사	031-772-9250	
		chinghai@unitel.co.kr	
영동	영동 센터	054-532-5821	
		houmril@kornet.net	
서울	서울 센터	02-577-2158	
		quanyim@unitel.co.kr	
	유태인	02-795-3927	
	이지자	02-599-1701	
부산	부산 센터	051-581-9200	
		chinghaibusan@hanmail.net	
	송호준	051-957-4552	
	황상원	051-805-7283	
전주	전주 센터	063-274-7553	
		shc5824@hanmail.net	
	신현창	063-254-5824	
인천	인천 센터	032-579-5351	
	이재문	032-244-1250	
대구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김익현	053-633-3346	
	한선희	053-767-5338	
	차재현	053-856-3849	
대전	대전 센터	042-625-4801	
	김수동	042-254-7309	
광주	광주 센터	062-525-7607	
	조명대	061-394-6552	
		smgwangju@naver.com	
안동	안동 센터	054-821-3043	
	김삼태	054-821-3043	
제주	제주 센터	064-99-6113	
★ 마카오	센터	853-532231	
		macau_center@email.com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 말레이시아

알로르 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조호르 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supreme2@tm.net.my	
칼라룸푸르	센터	603-9287-3904	
		klsmch@tm.net.my	
연락인 사무실		6012-259-5290	
		klgcp@hotmail.com	
페낭	센터	6-018-2413832	
		pgsmch@pd.jaring.my	
	Mr. & Mrs. Lin Wah Soon	60-4-6420370	

★ 몽골

울란바토르	Ms. Erdenechimeg Baasandamba	976-11-350422	
		baasandamba@yahoo.com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 네덜란드

카트만두	센터	977-1-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Mr. Ajay Shrestha	977-1-473558	
		ajaystha@hotmail.com	

포카라

센터	Mr. Bishnu Neupane	977-61-28455	
		neupanebishnu@hotmail.com	
	Mr. Shiva Bastola	977-61-28255	
	Mr. Raj Kumar Lama	977-61-31413	

★ 필리핀

마닐라 센터		632-842-8828	
		manilach@hotmail.com	
★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chinghai@singnet.com.sg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 스리랑카

콜롬보	Mr. Lawrance Fernando	94-1-412115	
		lawrance@thefinance.lk	

★ 태국

방콕	센터	662-674-2690	
		bkk_c@hotmail.com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	
		66-2-5914571	
		edasnlad@samsorn.stou.ac.th	

Mr. Wu Peir Yuan

	Ms. Siriwan Supatrchamnian	66-53-384128	
	센터	66-43-378112	
	송크라	66-74-447224	
	센터		

*** 유럽 ***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Chinghai@A1.net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	
	Mr. Shih-Tsung Lu	43-664-3909200	
		sound@gmx.at	

★ 벨기에

브뤼셀	Ms. Ann Goorts	31-6-11-240-115	
		gotske@yahoo.fr	

★ 불가리아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575358	
		oldruslan@yahoo.com	
플로브디프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hinghaiplovdiv@mail.bg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zeljko@mindless.com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prague-center@chinghai.cz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Chinghai@chinghai.cz	
★ 덴마크	Mr. Thanh Nguyen	45-66-190459	
		my@webspeed.dk	

★ 핀란드

헬싱키	Ms. Luong Hoang Hanh	358-9-8537455	
		hoanghanh@jippii.fi	



	Ms. Anne Nystrom	358-9-793902 anne.nystrom@kolumbus.fi	★ 스웨덴 엔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moonasilver@yahoo.com
★ 프랑스 알사스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arclai@infonie.fr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are.sweden@post.utfors.se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말미	Mr. & Mrs. John Wu	46-40-215688 john.wu@bolina.hsb.se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tich.hung@infonie.fr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ats.gigard@telia.com
파리	센터	33-1-4300-6282	★ 스위스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fengli@ilo.org
	Ms. Lancelot Isabelle	33-1-4030-1174 ilancelot@celestialfamily.net		Ms. Klein Ursula	41-22-3691550
	Ms. Ngo Thi Huong	33-1-4376-1453	★ 영국 임스위치	Mr. Shahid Mahmood	44-1473-436961 shahidm@ntlworld.com
★ 독일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pureocean@web.de	런던	Mr. Nicholas Gardiner	44-2089-773647
	Mr. Christian Bastwoeste	49-30-3470-9262		Mrs. C. Y. Man	44-1895-254521 pnl@matters19.freemove.co.uk
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201-5809-816 49-174-5265242 ngoc-thao.nguyen@gmx.de dusseldorfcenter@hotmail.com	스토크온트렌트	Mrs. Janet Weller	44-1782-412728 j.wellers@ntlworld.com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HamburgCenter@gmx.de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stmchwo@hotmail.com
뮌헨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ChingHai@aol.com	★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2002@yahoo.co.uk
	Ms. Kang Cheng	49-89-3616347 love_source@t-online.de			
★ 그리스 아테네	Mr. Eric Raza	30-01-6923-133 Razahidah@hotmail.com	*** 오세아니아 ***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r. Marcel Mannaart	31-72-5070236 m.mannaart@planet.nl	★ 호주 에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de@hotmail.com
	Mr. Nguyen Ngoc Trung	31-294-41-9783 vo-khong@wanadoo.nl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telstra.com
★ 헝가리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udapestcenter@freemail.hu		Mr. Gerry Bisshop	617-3847-1646
	Mr. Lux Tamas	36-304273364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ieng@telstra.com
	Ms. Dora Seres	36-1379-1924	바이런 베이/ 노던 리버스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기요르	Mr. Lehel Csaba	36-96-456-452 clehel@freemail.hu		Mr. & Mrs. Ray Dixon	612-6689-1282 rayandjulie@linknet.com.au
★ 아일랜드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bernardleech2003@yahoo.co.uk	캔버라	Mr. & Mrs. Khanh Huu Hoang	61-2-6259-1993 smcanbra@cyberone.com.au
★ 노르웨이 오슬로	Mr. Nguyen Ngoc Tai	47-22-612939 norwayqy@online.no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rosrobbery@aol.com
★ 폴란드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azak	48-91-4874953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phongloveme@yahoo.com
바르샤바	Mrs. To Soszynska	48-22-6593897 quanyin_pl@yahoo.com	퍼스	Mr. Alan Khor	61-3-9857-4239 ckhor@bigpond.net.au
	Ms. Lukaszewska Mariola	48-42-6860037 czakra@interia.pl		센터	61-8-9242-1189
로드즈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inet.net.au
★ 포르투갈 리스본	Mr. Joao Daniel Rosa Simoes	351-21-082-5306 lisbon_center@yahoo.com	시드니	Mr. Ly Van Tri	61-8-9244-7661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lcoa_center@hotmail.com		Mr. Eino Laidsaar	61-2-9477-5459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레이리아				Mr. Hong Bo	61-2-48445170 hongbo_huang@hotmail.com
★ 러시아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boulgakov@tri-el.ru		Mr. Ly An Thanh	61-2-9823-8223 anbinh_sydney@yahoo.com.au
★ 슬로베니아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dbk@siol.net	★ 뉴질랜드 오클랜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xtra.co.nz
★ 스페인 마드리드	Mr. Gabriel Gasca Hernandez	34-91-5930413 Madridcenter@yahoo.es		Mrs. Anne Lester	649-625-1809 annenz@eudoramail.com
	Ms. Lidia Kong	34-91-5470366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chsmch@hotmail.com
말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hamnzcont@yahoo.co.nz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멜본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Mr. Yu Xi-Qi	34-96-3347061 valenciachinghai@yahoo.es			



부담을 기쁨으로 바꾸자

청하이 무상사/ 1994. 3. 9. 미국 캘리포니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409

우주의 유희를 통달한 완전히 깨달은 성인들로서는 세속과 멀리 떨어져 산속에서 조용히 은거하는 편이 훨씬 자유롭고 즐거울 것이다. 그러나 지구상의 수많은 중생들을 돕고 세인들에게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모범을 보여 주기 위해 그들은 이 속세에 있기를 택한다. 이를 통해 성인의 입을 통한 가르침과 모범적인 행동을 조금이나마 접할 기회를 가지면서 우리는 수행자로서 세속에서 어떻게 우주의 대지혜를 운용하는지 배울 수 있게 된다.

때로 우리는 골칫거리를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가시고 부담스런 일을 멋진 일로 만들 수 있지요. 예를 들어 나는 평소 이런 옷은 잘 입지 않습니다. (스승님께서 입고 계신 조끼와 스커트를 가리키시다.) 지난번에 옷을 많이 디자인했는데, 아직 다 입지도 못했고 입어 보지 못한 것도 수두룩해서 원래는 옷을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몰래 이 조끼를 내 방에 두고 갔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전 출가승 중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녀는 전에 황량한 사막에 꽃과 함께 나를 혼자 남겨 두고 가 버렸는데, 진심으로 참회하는 뜻에서 이 옷을 사 가지고 돌아와 어느 날 내 방 창문으로 밀어 넣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 옷을 발견하곤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 옷을 입으라는 거야?’ (스승님과 대중 웃음) 달랑 조끼만 하나 사 왔으니 어찌란 말입니까? 이 조끼만 입고 단체명상에 갈 수 있겠어요? 그건 못 하지요. 혹시 내가 어느 날 그렇게 입고 와서 여러분을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계속 ‘이 옷을 어떻게 하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끼와 맞춰 입을 옷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나의 옷들은 대부분 좀 보수적이라서 허리를 덮는 긴 옷옷에 흰 바지 같은 것들뿐입니다. 재킷은 ‘꼭 가려야 할 곳’은 가려 주는 옷이어야 하지요. (스승님 웃음) 그래야 사람들이 내가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훌륭한 수행자로서 높이 깨달았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어쨌든 내겐 이런 조끼와 같이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조끼만 하나 입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이왕 생긴 옷을 버



릴 수도 없었고 옷이 작아서 줄 만한 사람도 마땅치 않았습니 다. 우리 단체에서는 내가 제일 작잖아요. 아마 ‘제일 큰’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제일 작은 사람이기도 하지요. 아무튼 이 조끼는 일종의 부담이 되어 한동안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좋아, 이 조끼와 어울리는 옷을 만들어 조끼를 활용해 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만든 겁니다. 예전에는 골칫거리였는데 말이에요. 이렇듯 우리는 부담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비난나에게만 즐거운 게 아니라 여러분도 즐길 수 있게 된 거지요.

심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2003 봄/여름 천의 린넨 니트 컬렉션

새로운
린넨 니트 브랜드

이번 컬렉션은 고품질의 린넨을 사용, 구김 방지 기능을 강화한 독특한 방식으로 짜여져 전통적인 편직 방식과 차별화된다. 매끄러운 비스코스 레이온을 혼방해 촉감이 부드럽고 섬세하며 로맨틱하다. 또한 피부가 자유로이 숨을 쉬는 듯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심신이 편안해진다.

린넨의 우수성

천연 소재로서 은은한 향을 내는 린넨은 땀 흡수성과 열 발산이 뛰어나며, 부식과 해충, 박테리아, 알칼리, 산에 강한 우수하고 실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직물의 여왕'이라는 평을 얻게 되었다.





새로 나온 책

The Old Time

'그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여행

칭하이 무상사의 최신 시집

칭하이 무상사는 저명한 시인으로 세계 각지의 예술계로부터 찬사를 받아 왔다. 『나비의 꿈』, 『잃어버린 기억들』을 비롯해서 이전에 출판된 스승님의 시집에 실린 많은 시들은 수상 경력이 있는 미국의 작곡가와 걸출한 어울락 음악가들에 의해 아름다운 곡으로 만들어 지기도 했다.

최근 출간된 『그 옛날』을 통하여 스승님은 시와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창작품을 다시 한 번 나누셨다. 스승님의 시는 마음속 깊이 공명을 자아내 독자들은 세속에서 경험하는 아픔과 고뇌에 대해 공감을 하게 된다. 이 시집에서는 인간의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탐색하고 고통에 직면했을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진솔한 반응들을 그리고 있다. 시와 그림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이 시집을 통해 스승님은 다시 한 번 우리 내면의 빛에 불을 붙여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는 동안 충실하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실어 주신다.

스승과 나

인생이 다할 무렵

오직 스승만이 우리를 맞으려 오시니

이생을 떠나 다음 생으로,

진실로 우리가 속한 고향으로 데려다 주십니다

지금 그를 비방하지 마세요, 곧 그를 만나게 되리니

그때는 모든 게 명백해지겠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틀린 겁니다

그는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신의 아들께선 모두처럼 육신만 고통받을 뿐

그의 왕국은 온 우주입니다

스승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